朝鮮日報
夕刊
二十三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右翼革命成就? 軍部獨裁宣言!

叛亂軍爆擊機의猛襲으로 政府軍艦三隻沈沒

【리스본二十二日發同盟】 리스본에達한報道에依하면 세빌리아放送局은 二十二日革命軍首領 프랑코將軍의名義로 全國에 軍部獨裁를 宣言하는 同時에 勞働者團體의 解散令을 發하얏다

【세빌리아二十二日發同盟】 세빌리아 放送局의 革命軍放送에 依하면 二十二日午後 革命軍爆擊機는 西南岸카디스港 碇泊中인 政府軍艦에 空爆을加한結果 政府軍艦三隻은 黑煙을吐하며 沈沒하엿다

叛亂總司令 프랑코將軍

叛亂軍首都肉迫 稀有의激戰豫想

【巴里廿二日發同盟】 西境方面의 報道에 依하면 西班牙政府는 革命軍이 首都에 迫到한다는 急報에 接하야 正規軍 民軍과武裝한 社會黨, 共産黨, 勞働義勇軍總數十五萬을 首都에 集中시켜 革命軍邀擊에 萬全의 準備를 終了하엿다 東方革命軍은 마드리드와 불데스와의 中間에잇는데 豫想附近에서 決戰을 行할 作戰이라고 보이는데 世界革命史上 稀有의 激戰은 드듸어 目睫間에 切迫하게되엇다

【마드리드二十二日發同盟】 革命軍은 繼續 首都마드릿드를 目標로 進軍을 開始한結果 首都마드릿드는 事實上 孤立에 陷하얏는데 그우에 食糧도 缺乏하야 市民은 戰戰兢兢하고잇다

「로」會議豫備會談 各國代表續續着倫

【倫敦二十二日發同盟】 로카르노豫備會議는 二十三日午前十時半 다우닝街首相官邸에서 開會될터인데 佛國代表방시그리氏는 리에르聯盟總務局長同伴 二十二日午後六時 五十五分 倫敦에 到着하야 宿舍에 들어가고 白耳義代表 방질랜首相은 二十三日午前八時 倫敦到着即時로 會議에 出席할豫定이다 그리고 불룸佛首相은 二十三日正午 倫敦에到着하야 午後의會議에 出席할豫定인바 今回의 豫備會談에 이어서 開會될 五國會議에의 前奏曲으로 이 豫備會談은 歐洲政局에 重大影響을 與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英佛兩國代表의 見解는 容易히 一致되지안허 會議의 前途는 벌서 多難을 豫期하고잇다

土耳其政府 海峽에武裝進駐

【이스탐불廿二日發同盟】 土耳其政府는 廿日 海峽條約調印과同時에 海峽武裝地帶에 進駐를 斷行한結果 陸軍當局은 이와同時에 新條約으로 公認된 武裝工事에 着手하엿다。 土耳其政府는 락크카렛시市에 强大한 陸軍根據地를 建設할 豫定이라고 傳한다

國家隆昌祈願 今日朝鮮神宮에서

朝鮮神宮의 國家隆昌祈願祭는 廿三日午前九時부터 總督代理今井田政務總監, 軍司令官代理佐枝參謀長 其他朝鮮貴族, 文、武官, 各道知事, 府民各總代, 軍部諸將, 總督府各局課長, 一般府民等多數參列下에 嚴肅히 執行되엇다

西班牙叛亂縱橫觀

叛亂의直接原因과 事變勃發의必然性

韓普容

熱情의國 西班牙에 또다시 叛亂이 일어낫다。 이番動亂은 封建社會의 潛勢力을 解脫하려는 自由主義를 背景으로한 革新的 動亂도아니오 近代資本主義가 齎來한 經濟的社會的 모든 禍根을 淸算하려는 革命的 動亂도아니다。 이番 西班牙의 動亂이야말로 모로코로부터 西班牙本土에 蔓延된 同亂은 歷史上에서도 드물게보이는 大動亂은 이미 封建的殘滓와 資本主義的 諸禍의 淸算을目標로 急激히 前進한 社會進化의 歷史의한때ㅣ지를 다시 뒤으로 끄집어닥기려는 保守的 動亂이며 反動的 叛亂이다。

去二月十六日 總選擧의 結果로 國會議員의 絕對多數를 獲得한 社會主義者 산되칼리스트 共産主義者中心의 左翼人民戰線은 一九三一年 四月의 無血革命(帝政廢止)以來 漸次右翼化하여온 자모라(Niceto Alcala Zamora) 初代大統領을 逐出하고 左翼人民戰線指導者 아자니아 (Manuel Azana)氏로 하여금 그椅子를 獲得하게하엿다。 그리고 새로히 大統領에 就任한 아자니아氏는 即時(去五月)左翼共和黨 巨頭요 革命家로서 有名한 키로가(Casares Quiroga)氏로 하여금 組閣케하야 今回反亂勃發까지 及하게되엇다。

이番叛亂의 原因은 키로가內閣이 王黨派를 中心으로한 右翼諸派를 急激히 또 苛酷히 彈壓한데 基因한다고 보는것이 一般的 觀測인듯십다。 키로가氏로 말하면 左翼共和黨의 熱烈한指導者로 일즉이 王黨派의 闘士들을 阿弗利加西北部海岸地帶인 西蘭리오 데 오로에 流刑放逐한 일이잇서 王黨派및 其他右翼諸派로부터 누구보다도 더 미움을밧는 人物이니만치 키로가政府에 對한 右翼諸派의 憎惡와不滿이 얼마나 强할것을 생각할수잇는 同時에 氏自身이 右翼諸派에 對하야 어떠한 政策을 썻스리라는것도 넉넉히 推想할수잇는가한다。 따라서 今回動亂의 原因을 키로가內閣의 高壓政策에 두는것도 一理가잇는 일이나 原因보다도 더 直接的인 今番叛亂의 直接의近因으로 말하면 王黨派의 首領이오 元藏相이엿든 소텔로(Sotelo)氏의 暗殺事件이라할것이다。 소텔로氏는 今月初旬에 極左急進的闘士로 有名한 모레노 大尉ㅣ派에게 暗殺되엇다。 그리고 모레노大尉ㅣ派가 소텔로氏를 暗殺하게된것은 그의 同僚 카스티리오中尉가 얼마前에 팟시스트黨員에게 暗殺된데 憤慨한까닭이라하나 모레노大尉를 首領으로한 極左急進派黨의 左翼巨頭暗殺計畫은 數個月前부터 進行되여왓다한다。 이리하야 從來부터 犬猫的關係에잇든 西班牙의 左右兩翼의 殺戮的 테로리즘은 一層露骨化하게되엿다。 去十四日 소텔로元藏相의 葬儀式에 參合한 三萬의 팟시스트 黨員과 數萬의 一般 參列者는 葬儀場에 이르러 팟시스트式의 擧手禮를 表하고 『暗殺의 張本人은 政府다!』『팟시스트萬歲!』『打倒議會!』等을 絕叫하면서 首都마드리드에 드러와 左派와 衝突한 結果 及其他 死者一名 負傷者多數를 내게되엿다。 이에 아자니아 大統領은 事態가 容易치안흠을알고 左右派抗爭의 激化를 念慮하야 國會를 一週日間 停會시켯다하나 十八日 모로코에서 發端한 今回叛亂의 烽火는 이때에 이미 그端緒를 보여준것으로 볼수잇는것이다。

西班牙에잇서서의 左右兩派의 抗爭은 그歷史가 이미 오래고 또 現在 左翼人民戰線이 國會議席의 絕對多數를 占하야 現在 政權을 잡고잇다하드래도 요前까지 政權이 右派勢力下에 잇섯고 또 現在에도 軍部에 多數의 王黨派人物이 實權을 잡고잇스니만치 政府軍과 叛軍의 勢力이 伯仲되여 따라서 叛亂은 一層더 크게된것이며 今回叛亂의 直接原因은 上述한바와가튼 소텔로暗殺事件 또는 키로가內閣의 高壓政策에 잇다하지마는 이것은 叛亂勃發을 促成한데 不過한것이며 이나라의 특수情勢로보아 左右勢力이 比等하여잇는限 今回叛亂은 어느程度의 必然的 結果로 볼수잇는것이다。

(寫眞은 危機에直面한 西班牙大統領 아자니아氏)

外人安全保障不能 西班牙政府自認

叛軍세빌리아放送局占據코 內閣總辭職을放送

【마드리드二十二日發同盟】 革命軍의猛烈한 進擊을앞두고 西班牙政府는 方今重大危機에 直面하야 各國居留民의 安全을保障할수업다는旨를 自認하게되엇다 마라가 駐劄英米佛 三國領事는 形勢重大化에 鑑하고 州知事에對하야 居留民保護를 要請하엿던바 州知事는 外國人에對하야 實效잇는 保護는할수업다는旨를 回答하엿다 도카라로기니아 大統領칸파니ㅣ스氏도 亦是二十二日午後 바르셀로나 駐劄米國 領事코랑크린氏에게對하야 革命의 結果 바르셀로나 市居留外人에對하야 生命財産을保障할수가 업시되엇다는旨를通告하엿다고傳하야 마드리드駐劄米國大使館當局은 以上의報告에 接하자 卽時 會議를開하고 自國民의 居留에 萬全을 期하기로되엇다

【세빌리아二十二日發同盟】 세빌리아放送局은 二十二日午後三時十五分 히라르氏를 首班으로한 西班牙政府는 總辭職을 決行하엿다는 旨를 放送하엿스나 右放送局은 目下 革命軍手中에잇스므로 眞疑는 알수업다

政友會首腦部會議

【東京電話同盟】 政友會에서는二十二日正午 芝三緣亭에 緊急首腦部會議를 開하고 濱田, 堀切, 中島, 若宮四總務 安藤幹事長이 出席하야 黨務部新設을 中心으로한 黨組織問題에 關하야 懇談한 結果 如左히 意見의 一致를 보앗다 從來의 黨組織을 一新하야 政務黨務兩部에 分割하고 黨務部長을 두지안코 總務에서 이를 分擔하기로하고 그 分擔範圍는 二十三日의 總務會에서 協議決定하기로하다음 黨의政策에 對한指導精神에 關하야 外交國防의 根本方針을 確定하고 政調結論에 잇서서도 이點에特히 重點을 두기로되엇다 그리고 故岡崎邦輔氏의 葬儀는 黨葬으로써 執行하기로되엇다

電力國營은 政友會의獨自案

【東京電話同盟】 政友會에서는二十二日午後三時부터 本部에 統制國策特別委員및財政 經濟部會聯合協議會를열고 電力國營問題에對하야 鑛煮調査局案 當業者의意向及 遞信省當局의 腹案等을聽取한結果에 基하야 自由討議를하고 意見交換을 行한結果 電力公營或은 國營主旨에 對하야는贊成이나 各方面의 試案은 再考의 餘地가잇다고 생각하다 따라서政友會로서는 獨自의具體案을 時急히 作成할것이라는데 意見一致되야 近日委員會에서具體案을 作成키로되엿다

日本特務巡補를 天津市衛兵射殺

【天津二十二日發同盟】(二十二日午後一時發表) 日本總領事館警察特務巡補百二十號張德祿은 昨日夜 日本租界內에서 檢擧한 政治犯人中國人某를 그自白眞相與否를 알아보려고 市政府로 데리고갓던바 天津市長張自忠氏의衛兵은 不法하게도 該特務巡補를 門前에서 射殺하야 日本側公務를 妨害하고 犯人을 逃走케하엿다

張市長 衛兵非行確認 處罰陳謝等을公約

【天津二十二日發同盟】 日本警察巡補射殺事件에 對하야 石田副領事 和久井署長은 今日 午後二時頃 市政府에 張自忠 市長을 訪問하고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다 張自忠氏는 衛兵의 非行을 認定하고

一、本事件關係者의 嚴重處罰
一、被射殺者家族에게陳謝
一、將來 此種事件發生에 對한 充分한 保障

을 約하게되엇스므로 石田副領事는 同四時 辭去하엿다

特務巡補事件에 總領事嚴重抗議

【天津二十二日發同盟】 日本特務巡補射殺에 關하야 天津總領事館當局은 天津市長張自忠氏에게 對하야

一、衛兵側이 公務를 認識치안코 이를 妨害하며 特務巡補를 就縛하야 射殺한것
二、射殺者는 張自忠氏의 衛兵인것

을 指摘하고 嚴重抗議하엿는데 該事件은 昨夜 檢擧한 擧動이 不審한 中國人이 保安隊中隊長이라고 自白한데서 特務巡補는 衛衙에 그眞相을 아러보려고 市政府門前에 다다르자 衛兵은 自動車로부터 特務巡補를 끌어내려 둘러싸고 公務를妨害하엿을뿐아니다 特務巡補 張德祿을 就縛하야 이를射殺하고 該中國人을 그곳에서 逃走케한것이다

日米關稅調整에 委員會設置論擡頭

【東京電話同盟】 米國의 日本品輸入阻止緩和를 爲하야 過般來栖駐白大使는 赴任途中 米國에서 華府當局과 여러가지로 折衝하고 또 駐米大使齋藤博氏도 크게 斡旋에 努力한結果 요지음 日米通商委員會라고도할 機關을 設하야 關稅引上을 行할 商品에 關하야 미리 調査研究하야 當業者에 重大影響을 與하는것을 避할수잇는限 關稅引上과가튼 手段을 取하지안코 兩國間의 通商關係를 圓滿히 進行시키는데 資하고저 한다는 意見이 有力히 唱道되게 되엿다 그런데 右委員會의 委員에는 日米兩國의 輸出業者와商工、大藏、外務各省當局及大使館 領事 商務官으로부터 選任하야 이를 常設機關으로할 意向인데 이設立에關하야 米國에서는 政治的理由로 急速히 希望할수업스나 施設可能性은 充分히 豫想된다 外務當局은 七月末 關稅問題에關하는 紐育駐劄井上商務官으로부터 右委員會設立에 關한 米國側의 意見에 對한 報告를 徵하야 積極的으로 彼我關係方面에 活動을 開始하기로되엿다

人事・集會

▲井上清氏(前遞信局長)退官後市內長谷川町三二番地로 轉居(電話本局五五一番)

議院改革要項 國民同盟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 國民同盟에서는 二十二日午後二時부터 本部에서 總務會를 開하고 議院制度改革案에 關하야 協議를 進行한結果 左記要項을 正式決定하야 이를 淸瀨一郞氏로부터 政府의 議院制度調査會에 提案하기로되고 이어서 伊豆富人氏로부터 政府의 [illegible]에 對하야 [illegible]

一、現行[illegible]을 活用하야 [illegible]
一、統制[illegible]을 設置하야 統制를 强化할것
[illegible] 同六時 散會하엿다
◆議院制度改革要項
一、貴族院의構成을 合理化할것
一、勅選議員選擧方法을 고칠것
二、貴族院議員의 任期를 四年에 延長할것
四、議會會期問題는 憲法第四十二條及 第四十三條의 運用으로 이를 解決할것
五、議員提出法律案은 適當히 도록 改正案을 設할것
六、議會構成의手續을 簡易하게 할것

各省서提出한 國策案三十餘件

首相의裁斷이極注目

【東京電話同盟】 各省으로부터의 國策案은 全部提出되어 目下 調査局에서 綜合國策樹立의 見地에서 三十數件에 達하는 國策案의 內容에 關하야 嚴密한 檢討를 加하고잇다 그리고 此等國策案의 取扱에 關하야는 三長官이 首相의 指示를 바더 事前工作으로서의 準備審査를 行하고 會議後 大藏의 後援下에 此를 首相의 裁斷參考資料로 提出하야 首相은 財政上의 關係에 關하야 馬場藏相과 協議를 거듭한後 首相으로부터 裁斷을 내려 國策그自體의 緩急先後를 決定하야 閣議에 附議할 順序이나 來年度 豫算編成의 基調은 厖大한 國防費를 窮之한財政으로써 如何히 充當하며 國民生活安定의 實을 擧할가함에 잇스며 所謂民農財의 均衡을 如何히 세울가하는데 잇서서 提出된 國策은 모다 國民生活安定을 基調로 立案되엇스나 現下의 財政狀態로보아 一應精選主義로 臨할바가업스므로 首相의 裁斷으로 優先的으로 採擇할 國策은 極히 僅少하야 各省提出의 國策三十數件中 겨우 數件에 不過하게되리로 廣田首相의 裁斷은 至極히 注目되고잇다 (寫眞은 廣田首相)

內閣調査局 調査官全體會議

【東京電話同盟】 內閣調査局에서는 商工省으로부터 原料國策이 提出된것을 機會로 [illegible] 綜合的[illegible]計畫을 樹立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 調査官全體會議를 開催하고 吉田長官以下各調査官이 出席하야 商工省의 小金工務局長外關係官의 出席을 求하야 商工省이 提出한 原料國策中 [illegible]國策을 中心으로 羊毛及纖維原料에 關한 商工省側의 根本方針을 聽取하고 今後의 綜合的 資源政策樹立方策에 關하야 여러가지로 協議하고 同五時에 散會하엿는데 今後는 鐵、燃料其他重要資源國策에 關하야 關係各省의 對策方針을 順次聽取하고 綜合的資源開發計畫의 調整을 急히 行하기로되엇다

日本서、米의對中 武器輸出을監視

米中銀協定不明으로

【東京電話同盟】 廿一日 須磨南京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 到着한 報告에 依하면 二十一日 同總領事는 財政部長孔祥熙氏를 訪問하고 過日來 成立되엇다고 傳하는 米中協定內容에 關하야 南京政府의 正式說明을 求하엿는바 右에 對하야 孔財政部長은 陳公甫氏가 米國에서 現銀에 關한 米中間協定을 規定된 以外에 最近 米中兩國間에는 特別한 協定은 存在치안는다는旨를 强調하엿다 陳公甫氏의 所謂米中銀協定은 現銀에 關한 米中間의 授受를 協定한 것으로 現銀에 對한 米國側의 供與는 依然 判明되지안코 武器軍需品의 供給에 關해서도 아직 判明되지안는데 日本은 東亞安定勢力의 見地에서 米國의 對中武器輸出을 嚴重監視하기로 되엇다

咸北知事後任 來週正式發令 兒島氏榮轉確實

富寧水電入을決定한 咸北知事竹內健郞氏는 昨二十二日 正式辭表를 提出하얏스므로 이에伴하는人事異動은 二十三日 總督總監의決裁를經하야 內閣에 送付하고 來二十八日의閣議에附議하야 發令할터인데 同知事後任에는 總督府會計課長 兒島高信氏의 榮轉이 確定되고 會計課長에는 鈴川林政課長、阿部慶南內務部長이 有力한데 今回의異動은 六名에 끈칠터이다

重要官制改正 勅令案可決 今日樞府本會議에서

【東京電話同盟】 樞密院本會議는 二十三日午前十時四十分 宮中東溜間에서 開會하고 平沼荒井正副議長以下 各顧問官 村上書記官長 政府側廣田首相、寺內陸相以下各閣僚 次田法制局長官其他關係官參列、天皇陛下親臨下에

一、重要官制改正勅令案

을 上程하고 村上書記官長으로부터 審査報告가잇슨後 審議에 들어가 審議한結果 異議업시 原案대로 可決하고 陛下入御하시엇다 따라서 政府는 該案의 御裁可를 기다려 閣議에附議하고 正式決定後 上奏御裁可를 仰하야 近日中 官報로서 公布하고 八月一日부터即日實施할方針이다

人面鏡

◇全國統一을 目標로 [illegible]를 召集하려라고。

◇때가正히 伏夾이라 [illegible]하야 모히는 땃人에게는 바야흐로 一身二圓을 [illegible]。

◇無事한 [illegible]을 [illegible]한 西班牙의 左右兩翼, [illegible] 宣傳戰을 展開。

◇左右翼도 於民에 無關이오 政體如何가 民生에 何關고, 살니기 前에 죽이는 [illegible]를 고만두라。

◇京城電車賃金區域改正發表의 內容을보면 都心中心으로 五錢制를 採用햇다。

◇但, 都心 이라하면 어대까지를 드러야할터인데 모가나는것은 무슨 測定일가。

◇圓周方으로 자이는데 京電의 利益이잇다하면 그反面에 市民의 損害가잇을것도 빤한 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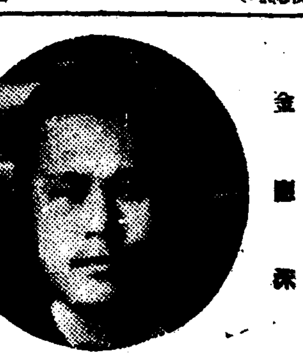
◇朝鮮에는 電氣事業의 民有[illegible] 輿論가튼것이 들니지 안는다는 말이지。

"間共"事件死刑囚 十八名死刑執行

廿二日、西大門刑務所에서

지난류월삼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바더 원심판결대로 사형이 확정된후 최후의 수단으로 박동필(朴東弼) 김동필(金東弼)두명을 제한 수현갑(周顯甲)등 열여섯명은 경성복심법원에 재심까지 청구하엿스나 청구리유가 업다하야 기각결정을 밧고 그간 서대문형무소에서 오로지 죽을날만 기대리고 잇든 간도공산당 사형수 김응수(金應洙)등 열여덜명은 이십이일 오전열시부터 경성복심법원 궁정(宮井)의전(依田)두검사와 궁긔(宮崎)형무소장 립회미테 전부 교수대의 이슬로 화하엿다한다 그리고 조선재판사상처음기록을 지은 시체열여덜은 서대문형무소 안뒤人산에 가매장하엿다한다

▲金應洙(三四) ▲朴東弼(二八) ▲周現甲(三三) ▲朴金哲(三一) ▲金光默(三一)
▲朴寶燮(三〇) ▲劉泰順(三〇) ▲李東鮮(三一) ▲高河鎭(二七) ▲曹東律(二八)
▲閔昌植(五一) ▲金鳳昊(二四) ▲金龍震(二九) ▲李鍾立(二七) ▲金東弼(二五)
▲池蓮浩(五一) ▲權泰山(三五) ▲盧昌浩(二七)


金應洙

劉泰順

高河鎭

金鳳昊

金東弼

權泰山

"여미覺悟는햇스나 그에는죽엇습니다"

死刑囚盧昌浩夫人張明浩氏談

그제는 간도공산당사건 사형수 로창호의부인 장명호씨를 차저드니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기어히 사형을 집행하엿습니까? 벌서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엿슬때 죽으리라고는 각오하엿습니다마는 인저는 아주 죽엇습니다 [illegible] 그가 귀되이때 그때도 사형은 면하리라고 기대하엿든니 나의 생각이 어그러젓습니다 [illegible] 나는칠년동안이나 남의집에잇스면서 오직 그이의 나올때만 기대리다가 이런경우에당하엿스니 무엇이라고말할수업습니다 다른피고들은가족도 별로업고 김광묵(金光默)의 부인이잇는데 그도벌서 각오는하엿겟지마는 이소리를 듯으면 놀래겟습니다 [illegible] 장례를어떠케할지 정신이 안슴니다

(사진은 로창호부인 장명호씨)

"一切말못하겟소"

宮崎西大門刑務所長談

사형집행의 간도공산당 사건피고의사형을집행한 서대문형무소의 궁긔(宮崎)소장을 차즈니 소장은 그사건에 대하여서는 일체말할것이업스니 더문지말어주시요 하며전혀말하기를피하는데

記者—사람이 열여덜명이라는만흔수효이니까 사형집행하는데는 시간도 상당히 걸렷슬터인데요

所長—글세요 시간도걸렷지요

記者—아침언제부터 시작되엿습니까

所長—그것도 말할수업스나 상상에맛기겟습니다

記者—그런데 피고들은공판정에서도 언제나 그들의 입장을 열성히주장하여왓는만큼 사형집행할때에도 어떠한말이라도 해보려고아니햇는가요

所長—할말할수는업스나 그들은 아미그날이잇슬것을 아주각오한모양으로 모다온순하엿습니다 고하며 일체말하기를피하엿다

元町沿岸에漂着된 校服입은腐爛屍

市內某女校의生徒인듯

이십이일 오후네시경이어 부내원정(元町)삼정목 이번지칠번지 한강연안에 나이 열여덜살쯤되고 교복에 단발까지한 학생모양의 녀자시체가 석어서 떠올른것을 때마침지나가든 사람이발견하고 소관룡산서에 통지해왓는데 그가신고잇는 운동화에다가 「사송삼공몃번」(四松三大番)이라고 씨여잇는것으로 보아 어떤녀자중학교 사범학생 [illegible] 명되엿스나 주소、성명、 그리고 학교등은 아직알수가 업서 그서에서는 방금 부청에학교로 수탐하는중이다

"赤友社"事件 取調一段落

今月末頃에는送局

본보—시내서대문서에서 월여를두고 취조를 계속하여오든적색비밀결사적우사(赤友社)사건은 이십이일 겨우 관계자 전부의취조를 끗마치엇는데 서류의 정리를따라 느저도 금월말까지에는 주모자류광호(柳光浩)(二七)김명룡(金命龍)(二三)외삼사명은 송국하게되리라고한다

南海岸에颱風襲來 關釜聯絡船도缺航

數千旅客은釜山에逗留 八七列車運轉中止

南部海岸各港에被害多大

【釜山支局電話】 지난 이십일일오후부터 조선을 향하야 진행하고잇든 시속 칠백삼십미리의 태풍이 맹렬한 형세로 북진하야 이십이일 오후네시경에 조선해협을 습래하엿고 동여섯시경에는 경상남도남부일대에 폭풍우가 일기시작하야 바람의 형세는 점점 강하여젓고 동해안각항구의 긔선과 어선은 일제히 출항을 못하엿다。

그리고 관부련락선도 현해탄의 풍랑이 격심하야 이십이일 오후열한시반 부산항을 출발할창경환(昌慶丸)은 결항하엿다 그래서 그선객일천이백여명은 창경환에 탄대로 그출발을 기대리고잇다

그리고 이십삼일오전 열한시반 부산을떠나는 긔선도 출항을중지하엿다 그로말미암아 이천여명의 려객은 시방부산에서 체류중이여서 잔교는 대혼잡을 일우엇고 각려관은 모다 만원이다

그리고도 이십삼일 오전여섯시반 부산에 도착할예정이든 덕수환도 하관(下關)에서 약일천여명의 려객을태운채로 배는떠나지못하고잇다한다 이로말미암아 이십삼일 오전여덜시삼십오분 부산을 출발하는 제팔칠렬차의 운전도 려객이업서 중지하고잇다

그리고 이번태풍으로 말미암아 각지에피해는 상당히만흘모양이나 그자세한것은 아직알지못하고잇스며 바람의 형세는점차로 약해저서 일홉로는 별일이업슬듯하다한다

朝鮮映畵對策討議

본보—대판(大阪)에잇는 삼영사(三映社)에서 조선영화 홍길동전(洪吉童傳)을 가저다가 지난십오일부터 대판 어느극장에서 이주일간 예정으로 상영중이든바 별안간에 대판부 보안과로부터 일주일동안 상영하엿스므로 말미암아 드디여 조선안 영화계에서 문제를 이르키게되여 각영화게관계자들이 이십삼일 오후다섯시에 시내 태평통 경성부민관(府民館)에 모히여 그대책을 협의하기로되엿다 대판부보안과에서는 이뒤로는 일체 조선영화의상영은 허가하지안틀 방침이라는데 홍길동전 상영을 금지한리유라는것을 드르면 영화그자체에는 별로히나쁜것이업스나 대판부경찰부특고과내선계(內鮮係)에서는 동화운동(同化運動)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고 보안과에서는만흔조선사람이 집합하야 치안(治安)과위생상으로보아서 자미업는일이생긴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국이 박약한리유로서 금지리유가 못되는것이오 실상은 조선의 문화보급을 리해하지 못하는 행정관 처치라고 하지안흘수 업다한다 조선사람에게 관련된 조선문화의재료로서 제작한 조선영화를구경하지못하도록 막는다는것은 아프로 조선영화의 발전과 또는 조선문화의 보급운동에 큰방해를 주는것으로서 이번 대판부보안과의 처치는 일반의자들의 격분을 일으키고잇다

風紀上不美타고 避難民에게退去命令

新義州署의苛酷한處事

【新義州支局電話】 귀보-지난이십일일오후여섯시아래의 폭우로 되엿다는것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그중침수가 심한 마전동(麻田洞)과 린포동(麟浦洞) 주민들은 길가에 막을치고 전전긍긍한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보며 밤을새우든중 이십이일밤에는 신의주경찰서에서 작변례에 비추어 풍긔상재미업다는 리유로 퇴거명령이나렷는데 철상가상으로 이가튼명령을 마즌 주민들은 당황하야 두서를 차리지못하고잇다한다

水災의新義州 (上)은 府外麻田洞의 增水難況 (下)는 堤防우의 避難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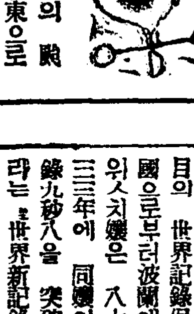
京城은九十一度!

酷暑는當分繼續

最高記錄(京城으론九十九度五 全朝鮮엔元山百度三)

今年엔좀더더워진다

마침내 본격적으로 접어들은 더위는 시시각각으로 수은주(水銀柱)를 올려가게만하야 이십삼일오전열시현재에는 섭씨삼십삼도이분(화씨로 구십일도이분)이여서 사람으로하야금 견듸기어렵게한다 경성측후소의말에의하면 이번더위는 아프로도 얼마동안 계속하리라는데 원체 온도는 루진적(累進的)이여서 더위가계속되면 될수록 그감각은 더욱 뜨거워지는법이라한다 그런데이제 경성을 중심으로한 최고온도를 지나간긔록에서 더듬어보면 일천구백십구년—즉 대정팔년 팔월이일에(온도는 언제든지 방열시를표준하야 최고온도를정한다) 섭씨삼십칠도오분(화씨로 구십구도오분)이 최고온도이엿고 또 조선전체를 중심으로한 최고온도를 보면지난 일천구백팔년(명치사십일년) 칠월이십일일에 섭씨삼십팔도구분(화씨로 백삼도)이 최고온도로서 긔록 되여잇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에는 섭씨삼십이도칠분이엿다하니 압흐로도 온도는 작구올라갈듯하며 더위는 계속될듯하다한다 그리고 비는 좀처럼 오지 안흘듯하며 다만 쏘나비가 잇다금잇슬듯하나 별로 신통치는 못할것이다 그리유로는 고기압(高氣壓)이 오래전부터 특별히중부조선에 돌출하여잇고 만주방면에는 저기압이 낫다 재작일부터 내리든비는 일전히 개엿고 평남과황해도 방면도처에서 족으마한 쏘낙비가잇는것이나 긔온은여전히놉다한다



天氣予報

概況 七三六미리의 颱風은朝鮮海峽을 東北東으로 進行하며 日本海에 突出하고잇서 그것으로因하야 朝鮮海峽과 九州西部는 호리고잇다 高氣壓은 日本本州의 東海上으로부터 日本海에퍼지고잇다 滿州、朝鮮은 호리며 北東岸은、小雨가잇다 九州와西國地方을 빼여노코는 大體로호리고잇다 明日도日氣가良好하며좀더워진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맑으며 明日도가트며 좀더워진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三二·度九
同 最低 二一·度九
今朝 最低 二四度三
今日 正午 三〇度八

빨래하는處女頭上에 土管이떠러저重傷

全治까지엔一朔이걸린다

이십삼일 오전열시경에 시내 서린정(瑞麟町)칠십팔번지 홍순익(洪淳益)의집 고용녀 리영순(李英順)(一七)이가 그엽집에서 빨래를 하고잇슨중 린접한 팔십번지의 굴뚝이 떠러저서 굴뚝토관이 그처녀의 머리를마처서 혼도된것을 곳 광화문통 광중(廣重)의원에 입원식혀 응급치료중인데 전치일개월가량의중상이라고한다

千圓가진少年潜跡

시내아현정(阿峴町)칠십오번지의 철호에 사는 최완식(崔完植)(一八)이가 이십이일오전 열한시쯤에 금고에 너허두엇든 현금일천원을 가지고 어데론지 가버리고 말엇는데 시내각서에서는 방금그행방을 엄탐중이라고한다

水王産婦人科 醫博士 李麟杰

自動車에老婆重傷

이십삼일아침 여덜시오십분경에 태평통(太平通)이정목 백십사번지 남대문교차점(南大門交叉點)부근에서 황금정(黃金町)사정목십일번지 부사(富士)택시ㅣ리승호(李承鎬)(二三)의 경제구천이백사십오호차에 서계동(西界洞)번지 미상의 양씨(楊氏)(五七)가다치여 골막(骨膜)에 다다를 상처를 두부에바더 곳부근선전(朋田)병원에 입원가료중이라한다

水泳中에溺死

시내현저정(峴底町)일백륙십륙번지의무직사에사는 방태형(方泰瀅)(一七)은 이십이일오후 일곱시쯤에 양화진(楊花津)대안에서 수영을하다가 기픈데빠저 무참히죽고말엇다하는데 시체는 오후열한시쯤에 발견되엿다한다

運動競技

마라손60名 陸上出場人員追加

【伯林廿二日發同盟】 伯林올림픽大會陸上엔트리ㅣ는 지난十八日에追加發表하엿는데 百米외六十九名을最高로 最少는投鐵鎚의三十三名이다 그리고 一萬米는 豫選을行하지안코 곳決勝을行하기로되엿다

▲마라손 六十名
▲五萬米競步 三十七名
▲走高跳 四十九名
▲走幅跳 五十二名
▲三段跳 三十八名
▲棒高跳 三十七名
▲投槍 四十二名
▲投鐵鎚 三十三名
▲百米 六十九名
▲二百米 五十四名
▲四百米 ▲八百米 ▲千五百米 各五十二名
▲五千米 五十一名
▲一萬米 四十名
▲百十米障碍 ▲三千米障碍 ▲四百米障碍 各三十五名

中等籠球大會 卅、卅一日兩日間

朝鮮籠協支部主催의中等籠球選手權朝鮮豫選은來三十日과 三十一日의兩日間 京城(場所未定)에서 開催될터이라는데 高普部에 光成高普 第一高普 第二高普 徽新學校 商業校部에 崇仁商業 道商 善隣 師範部에平壤師範 京城師範 中學部에 元山中學 龍山中學等이 出場할豫定이라한다

七對二로平蹴快勝

【平壤】 東京留學生蹴球軍은 二十一日夜平壤에到着하여 二十二日午後五時부터 崇實學校球場에서平壤蹴球團主催로 平壤蹴球團과 對戰한바 留學生軍 連日의奮鬪로 極히疲勞하여 前半戰四對零、後半戰三對二 計七對二로 敗戰햇다(兩軍의『멤버ㅣ』는다음과가트며) 中央、每申、朝鮮三支局主催로春日食堂에서 歡迎晩餐會가잇섯다

留學生蹴球解散

【平壤】 東京留學生蹴球團은 平壤에서의『께임』을 最後로 解散하고 各其그리운 故鄕에 도라갓다

次回올림픽大會 招致機運濃厚

【倫敦二十二日發同盟特派員】 連日 倫敦에서 올림픽東京招致問題에 關하야 各方面으로活動하고잇슨 副島道正伯은 日本스포츠界의 輿望을 披瀝한바 英國스포ㅣ츠界의 首腦部는七月末伯林에서 開催되는 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途中 倫敦案을 撤回할것으로 推測되다

女子八十米世界記錄

【왈소ㅣ十九日發同盟】 波蘭陸上選手權大會는十九日『왈소ㅣ』에서 擧行하엿는데 女子競技에잇서六十米로부터 二百米까지의 四種目의 世界記錄保持者로 最近米國으로부터波蘭에歸國한 와라쉐위스지孃은 八十米決勝에 一九三三年에 同孃이作成한 世界記錄九秒八을 突破하고 九秒六이라는 世界新記錄을 樹立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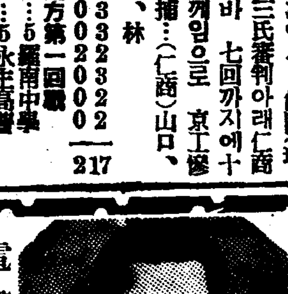
中等野球豫選 仁商17 京工2

大朝主催의 甲子園中等野球朝鮮中部豫選第二日…仁川商業對京城工業第一回戰은 二十三日午後一時부터 京城球場에서 佐田(球)平井、橋口(壘)三氏審判아래仁商先攻으로開始한바 七回까지에十七對二의 콜드께임으로 京工慘敗하엿다 ◇投捕…(仁商)山口、佐藤(京工)田中、林

仁商 2332322—17
京工 0002000—2

▲北朝鮮地方第一回戰
成興商業12…5鏡南中學
鏡城高普8…5永生高普
咸興農業23…21咸興高普
元山中學17…11元山商業

朝鮮唯一 電醫養成



現代成功의秘業
最新最高 電氣物理醫療師
○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責任指導
本院卒業生內鮮各地無試驗開業資格
僅少의資金短期修業으로成功確實 醫師同樣의尊敬과生活의安定을得한다
不遠內務省令公發表되며
夏期特別大講習生募集
規則書로申込하면進呈
朝鮮高等電醫講習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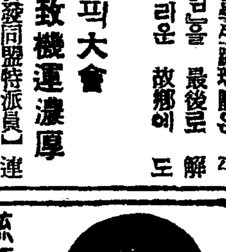
女給募集 募集面談又는書信(但寫眞添付) 仁川府外里一六六 바ㅣ銀鈴

外交員募集 就代理店募集 外務員 有望 五才以上五十才까지 簡易 希望者는午前中當商會에來談하라 京城府本町五丁目五二 イロハ藥品商會

朝報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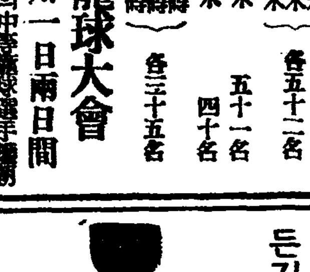
山羊乳 キング山羊牧場 城西直輸入系優良山羊 京城東小門外城北町 電話光化門(3)三〇五三番 振替口座京城三三〇番

流行歌(一枚八十錢) 울기는누가울어 웃는날이여 리ㅣ갈레코ㅣ드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副業으로男女老小兒도업시 自宅에서 福榮本舖 大阪天王寺區寺田町

ミノル式製粉機 穀類의製粉은무엇이든지自由로됩니다



其他小型車軸、籾油、石油發動機、精米麥機、稻麥脫穀機、籾摺機、揚水ポンプ 在庫豊富
森田商會機械部 釜山府大倉町四丁目 電話長六五五六番 振替釜山三四四七

最强力殺虫劑 專賣特許 イピレス (蠅必立死)
여름의强敵 害虫무리 一掃석허라!
神戶 長岡驅虫劑製造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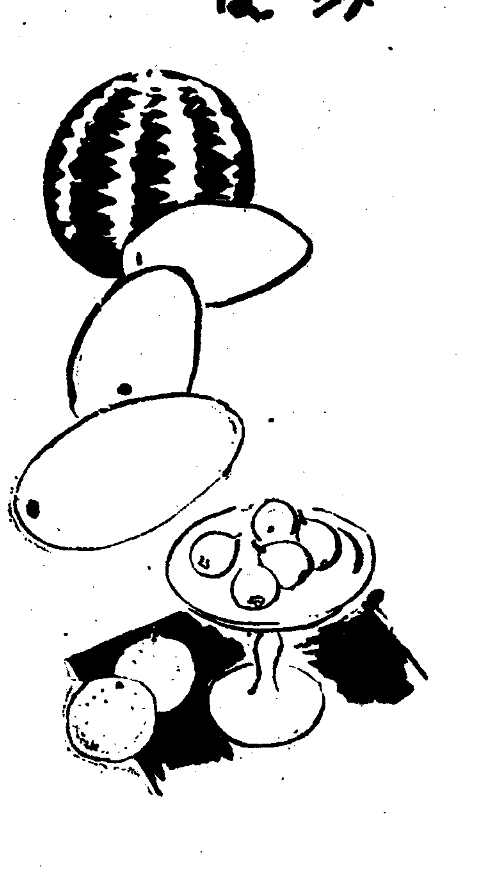
納凉氣分滿點한 朝鮮料理 賞春園
雜沓한都會를떠나山水와凉風의佳境을차저東小門外로!
東小門外貞陵 電光二六四番

김질藥은 ホオヂリン

바다로! 山으로!
여름의行樂을萬倍하는
化粧美의粹!
더운盛夏！化粧은勿論斷然코
新鮮한것이조타……
白粉은爽快한ウテナ水白粉이조타
쨍쨍이내려쪼여는볏아레이슬바든
꼿가티新鮮하게여러분을아름
답게裝飾하여드리니까……
幸福도、젊엇슬때歡喜도모다秘藏한어
丹粧！바다에서山에서夏季生活의行樂
을萬倍하는麗艶한化粧……
ウテナ水白粉
우데나
땀과기름에밀리지안코
서늘하고麗艶한化粧美！
얼골을아름답게하는同時에
化粧水同樣의作用으로살결을緊張케하고
脂肪의分泌를調節하므로 땀과脂肪에밀리지안
코恒常潑溂하고新鮮합니다！
살결이겨철기쉬운분이나기름끼가만흔분이
나 濃淡이엽시먹는것은當然한理致입니다
살결의美를自然히살려서
不自然함이엽시優雅한化粧이됨니다！
色은八種 살결에 잘먹으므로
깨끗하고明朗하게個性美를
마음꼿살릴수잇는生生한新鮮色입니다
洋裝의近代美를讚揚하는분에게도
고옥한黑髮의傳統美를살리는분에게도
다-거뻐마지하는色과色입니다！
ウテナ水白粉
肌色
濃肌色
健康色
부夯룬
내랄
白色
오-클一號
오-클二號
땀과기름꺼엿는살결에新鮮한感觸！
ウテナレモンクリーム
우데나레몬크림
은근하게남어잇는그윽한香氣！
하로라도速히大理石의살결을！
레몬獨特의美肌作用으로살결을히게하고여드름
파볏꺼름을防止하며、살결에꼿입과가티柔軟
한生彩를給與하는우데나레몬으로
여러분！하로라도速히大理石가튼살결을！
ウテナ化粧料
マンテン石鹼
本舗・東京・久保政吉商店

물싸움할까?

家庭



바다를제집가치 부러워되는해녀

그러나 누구든지물에서뜰수잇다 헤엄을배호자면이러케!

절에 가면 중되고 싶고 세간에 나려 오면 속한이되고싶다고 바다ㅅ가에 가면 날틈이 헤엄잘벙 바다ㅅ속에 들어 가서 헤엄도 치고 자맥질도 치는 것이 몹시 부럽습니다。사실 운동으로도 헤엄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가티 대단히 조흔것이라 요사이는 헤엄 휘엄하고 남자나 녀자나 모도 헤엄에 들떠서 야단법석입니다。그런판에 헤엄을 치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흔히 겁이만코 또 묘리를 몰라서 그러치 무어 그러케 배호기나 어렵습니까? 자 헤엄을배호시려는 분은 이리로들 모이십시요。아조 간단히 배홀수잇는 비결을 공개하야 드리오리다。

(一) 처음으로 배호는 이는 물ㅅ겁이 업고 허리ㅅ밧게 떠갈지 안 한 곳을 골라서 거긔서 헤엄을 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二) 누구나 뜨지 안는사람이업다고 마음을 먹 노코 뜨려면 갈아 안고 갈아 안지려면 뜨니까 차라리 갈아 안겟다고 갈아 안즐 작정을 하십시요。

(三) 숨을드려마시고 눈을 감고 두손으로 무릅을 안고 아조 결심을 하고 딱 갈아안지면 잠간 갈아안젓다가도 꼿다시 떠오르니까 그때가서 눈을 뜨십시요。

(四) 그러나 등어리는물바그로 나오려라도 머리는 나오지 안합니다。숨이 정 막히어 끈난하거든 두손을 노코 다리를 펴서 다시 일어섭니다。

(五) 위선 이러케 되푸리하고 되푸리하야 물에 뜨는 버릇을 이키어 둡니다。

×

(一) 이번에는 옷을 드뤼켜 쉬워 두손을 아프로 펄치고 얼골을 물에다가 대고 발에 힘을 주어서 몰바닥을 찹니다。몸이 아프로 쭉나갑니다。

(二) 이번에는 그 자세를 그대로 두고서 두발로 호당랑 호당랑 아래우로 놀립니다。몸이 부쩍부쩍 아프로나아가게 됩니다。

(三) 그런다음 발은 발대로 놀리면서 손을 아프로내밀어서 미트로 물을 누르듯이 물을 헤치어 잡아 다깁니다。이제는 얼골을 들어도 조코 물론 숨을 쉬어도 좃습니다。그러나 무리로 어깨까지를 내노흐려고 들면 도로 가라안저 버립니다。본래부터도 참말로 헤엄을 잘치는 사람들은 몸은항상물ㅅ속에너코 얼골만 내노케 됩니다。

×

(一) 그래도 안되는분은 동무하고 가려가서 그동무더러 손을 잡아다려라고하고 발만호당랑 호당랑 놀리어도뜻습니다。그러면 몸이 밧듯이뜨게됩니다。위선 한손을 노하서후비적어리지 안습니까?그러다가 다른 한손까지 마저 노흘때는 부지중 그손마저 후비적어리게 되야 몸이 갈아안지 안습니다。

(二) 또 귀찬스럽게 동무의힘을 빌기가 실흔때 고무로 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붓들고 뜹니다。그래서 작구 뜨는 련습을 하야 둡니다。그러다가 바람을 차차 주리어 가면서 련습을하지 안습니까?나중에는 바람이 전부 업시 그대로 뜨게 됩니다。

하여튼 공연히 뜨려고 애쓰지 안는 것이 제일입니다。뜨려고 애쓰는데서 대개는 헤엄을 못 배홉니다。

회포풀게된 各校同窓會

◇京城女高普 졸업생들로 조직된 경운회(慶雲會)의주최로 오는이십오일 오전열한시 모교강당에서 동창회를 열기로 되엇는데 졸업생제씨는 모두다 모이기를 바란다합니다。회비는 오십전 오실때 가지고 옵시사고요。

◇進明女高普 진명녀고보졸업생제씨는 오는이십륙일 오후한시까지 창경원아프로 모이시라합니다 이날은 창경원과 비원(秘苑)을 배관하기로 되엇는데 어린애기는 데려오시면 안되다합니다 회비는 오십전 역시 그날오실때 가지고옵시사합니다。

動物愛護 ●

함께 타죽은 말과강아지 (一)

崔秉和

정연는 조고마한강아지한마리가 이동리에 드러오자 작란꾼 아헤들은 그강아지를 돌멩이로 따리기도하고 색기로 올개미를 씨워가지고 끌고 단니기도하고 강은데두고 통기도하고 를시 괴롭게 구럿습니다。이러케 이동리 아헤들의작난감이되고 놀림감이되엿든 그강아지는 어데로갓는지온데간데엄시 그자취를 감추어버렷습니다。

『어데로갓니?』

『글세 누가잡어갓다!』

『너무괴러서 마차에 깔려 죽엇나봐지』

아이들은 이러케 말하면서 그 강아지를 이곳저곳 차저단녓스나 도모지 찾을수가 업서서 그냥 호지붓지 해지고 말엇습니다。

그이튿날 오후 동리아이들은 그동리에서 제일 큰 려관의마구간으로 놀러갓습니다。그 려관에는 손님의 짐을 날르는데 부리는 말을 기르고잇스므로 아이들은 말을 놀리려 뒤뜰구석에잇는 마구간으로갓습니다。

말은 다른때와가티 긴목아지를 내젓고잇섯는데 그때 한아이가 큰소리로 말하엿습니다。

『여기잇다 여기잇다。』

『무엇이잇나봐라고 아이들이 우-몰려와서 손구락질하는곳을 바라보드니

『참말잇고나봐라고 와 떠들엇습니다。그 마구간 한편구석에 쪼그리고 누어서 그 강아지가 잘을자고잇섯습니다。

『요놈이 어떠케 이곳에 왓슬가』

『말발굽에 채여서 깨! 소리못하고 죽을라고』

『고내논차』하고 아이들은 안나오겟다고 버둥거리는강아지를 간신히 끄러내엿습니다。

『너 그곳에가면 말발굽에 채여죽는다 다시는가지마라』

이러케 일르고서는 강아지를 떼놓고 큰길로나가서노랏습니다。아이들이 한참을고잇는동안에 그강아지는 눈에띄우지아햇습니다。암만차저도 보히지안흠으로 아이들은 또 마구간으로가보앗드니 또 전처럼 쪼그리고 누어서 눈을 말뚱 말뚱뜨고잇섯습니다。

『하하 이게는 이곳을 자기집으로 정하고잇고나』

『말이 가만두는게 신통하다』

아이들은 마구간아페서서 이러케 말하면서 그냥들 가버렷습니다。

아이들은 마구간아페서서 이러케 말하면서 그냥들가버렷습니다。

강아지는 어느때까지나그 마구간에 잇섯습니다。서잇는말다리에 고양이가티 하롱거리고잇기도하고 또 어느때는 개가 발다리를 쭉 붓을고잇스면 말은 그다리를 드러서 가만가만히 흔드럿습니다。강아지와 적은동은 말굽에 매달려서 흔들흔들놀이엿습니다。

『야! 말다리에 매달려서 개가 건네를뛴다。』아이들은 모든 신기하거나 봇거처럼 껑충 껑충뛰면서 자미잇서합니다。어른들도 무언가하고 몰려들와서 구경하엿습니다。

말이 짐실은 마차를 끌고갈때는 으레히 강아지는 아플스거나 여플스거나 하면서 따러갓습니다。

말이 기운을드려서 뚜벅뚜벅마차를끌때는 아모것도 끌지안는 강아지도 말하는대로 네발을 무겁게떼노면서 무거운짐을 끄는것처럼 하고잇섯습니다。

『응、잘한다 잘끈다』하고 마차꾼은 얼골에 웃음을띄우면서 강아지를보고칭찬하얏습니다。

여름의감촉

요새입는옷감은 엇던것들일가?

① 吳淑禎

——이글을 쓰기전 나는직물계의 권위인 김련재(金鍊載)씨께 배운바가 만흠을 감사합니다。

◇쪼ㅡ젯톤

무명실로짠『지지미』의일종입니다。이감을 짜라면 먼저실을 긔게로 세게꼬아가지고 짜는까닭에 실때부터조불조불합니다。그중마히 꼰것은 일천오백번까지꼰답니다。짜가지고 가마에다 쪄서 풀을먹여내는데 짜논후에도 실쩍에와가티 고굴고굴합니다。그래서 실이꼬지아니한것보다 몃갑절이나 더듭니다。이옷감은가븐무명실이라도 땀이 차지안는 것이 특색입니다。

세탁은 양잿물보다 비누가좃습니다。무명실임으로 약간소다잿물에는 그리상하지안코 비벼빨아도조흐나 잿물에 살므면감이여려집니다。빨아가지고풀을 약간하십시요。

갑은여러층이잇지만 표백한것으로 그중조흔것은 소매가격으로 한마(碼)에 팔십전까지갑니다。염색한것은 마에오전 문의놓은것은 마에십전쯤 더합니다。『쪼-젯톤』종류는 의례히빨면불고줄고하는데 근일에는 그중상품의것은 이런페단이 아조 업습니다。이감은 외로꼰쌍겹실(左撚雙絲)과 바로꼰쌍겹실(右撚雙絲)을 가지고짜는데 짤때에 미리사십이인치(四十二吋)폭으로 넓게짜가지고 긔계로 이십팔인치(二十八吋)폭으로 밧짝줄여버린까닭에 다시는 늘고줄나위가 업습니다。

이만한 특장이잇서서 전매특허(專賣特許)가되고 가격도마에팔십전이나갑니다。이감만은빨아가지고풀을먹이지아니하야도 빳빳한과운이 그대로잇습니다。

◇쪼ㅡ젯트

무명실로짠것을『쪼-젯톤』라고하고 그외의비단실이나 인조견사(人造絹絲)나 비단바탕에 인견(人絹)으로문의논것들은『쪼ㅡ젯트』라고합니다。『쪼-젯트』라면불란서재봉사(裁縫師)에매당(?)『쪼-젯트』란 일홈에서나온 명칭인데 짜는법은『쪼-젯톤』과마찬가지요 문의논것과 안논것이엇습니다。바탕이얇은데다가 떠욱이 문의를 여름옷감으로서 량미(凉味)백퍼센트의의장(意匠)을내여 보는사람으로 경쾌청상(輕快淸爽)한 늣김을 주랴하는데서 제조업자들의 고심을알게됩니다。

세탁은 물론 비누에 놀려빨아야합니다。떠욱이 인견(人絹)으로문의놀은것은 문의논실끄리 안으로 늘어진것을 가위로 다듬은까닭에 빨때에 세게비비면 문의가 풀리기 쉽습니다。『쪼ㅡ젯트』는 원악 바탕이 얇은까닭에 세탁해가지고 풀을살짝먹여야합니다。

순견(純絹)바탕에 문의논것은 한마에 사원이십전까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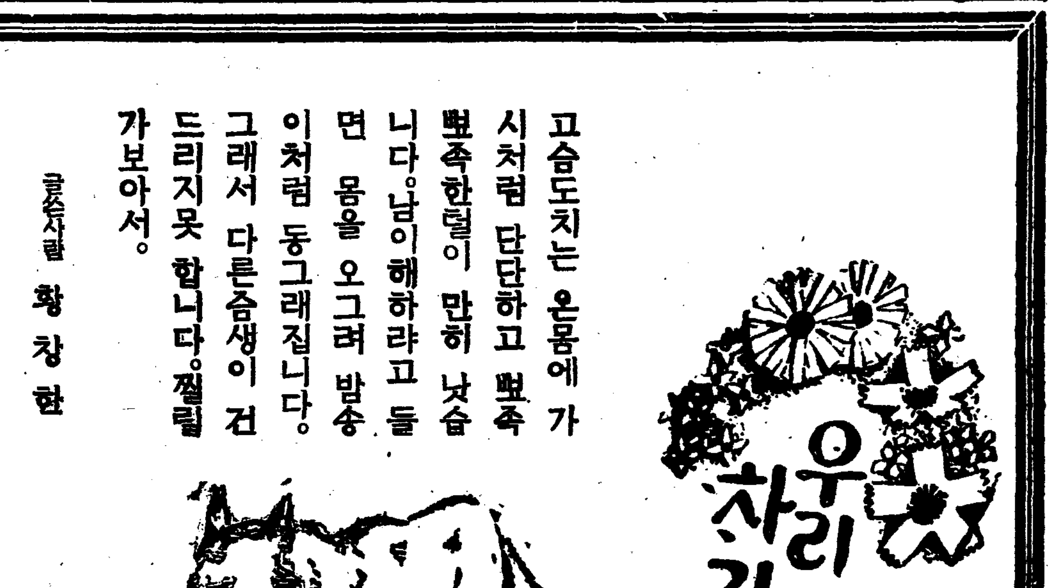
◇로·보이르

로(絽)는일본말이요『보이르』는불란서말입니다。조선말로라(羅)조라(紗羅)로라고하는데『로·보이르』라고하면 설명한『보이르』와는동입니다다。『보이르』에는 무명실 비단실 인견(人絹) 여러종 여러가지실로짯것이잇습니다。

이감은 날(經)은쌍사(雙絲)요 씨(緯)는단사(單絲)로서 실에풀을 먹여가지고 짯까닭에 빳빳하고 섞긴이만틈 바람이잘통해서 시원한맛이잇습니다。본래는 빨아도되히상치안습니다。빨아가지고는 반드시 풀을먹여야합니다。갑은한마에 표백한것이 팔십전합니다。

비단실로짜는데는 흰끄치실을쓰지 누른끄치실은절대로 아니씁니다。잿물에비단『보이르』를빨면 첫재로 빗갈이누르러지고 몸이 상하기쉬우니 비누에 놀려빨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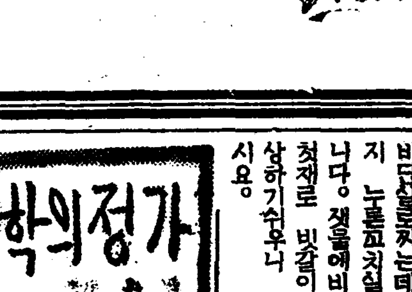
우리차지



고슴도치는 온몸에 가
시처럼 단단하고 뾰죽
뾰죽한털이 만히 낫습
니다。남이해하랴고 들
면 몸을 오그려 밤송
이처럼 동그래집니다。
그래서 다른즘생이 건
드리지못 합니다。찔릴
가보아서。

글쓴사람 황창한

가정의학



족관절염

問 본인은 삼십이세온대 일주일전부터 다친데도업시 발등이 식음식음하며 아프드니 근일에는 발목이 식음식음하며아픕니다 병명과 약을 하교하여주시요 (市內 一讀者)

答 족관절염에는 틀님이 업사오나 어떠한종류의것이지는 진문이 모호하야 판단키어려웁니다 단순한것이라면 의치를 가하지안트래도 나을것이오 만약에 결핵과가튼 종류의것이라면 속하 적절한 치료를아니하면 난치이오니 무엇보다도 속히 확실한진단을바들 필요가잇습니다 (城大小川外科醫學博士金晟鎭)

絢爛한 天分의 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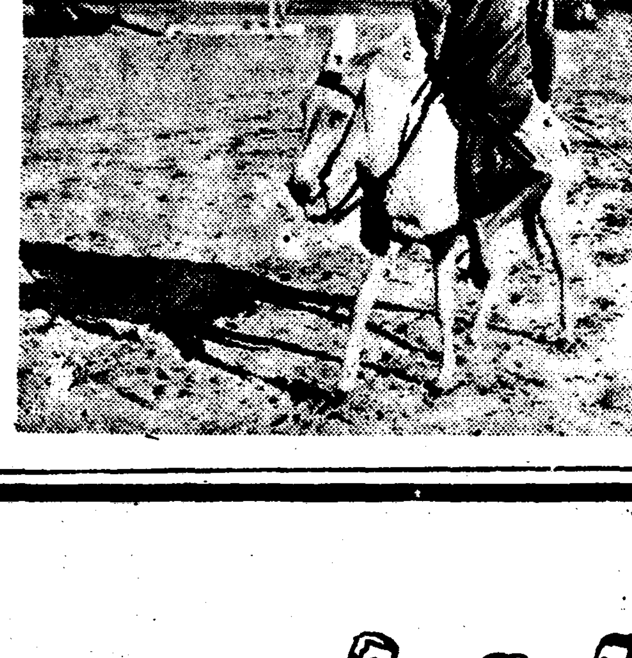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애급의나귀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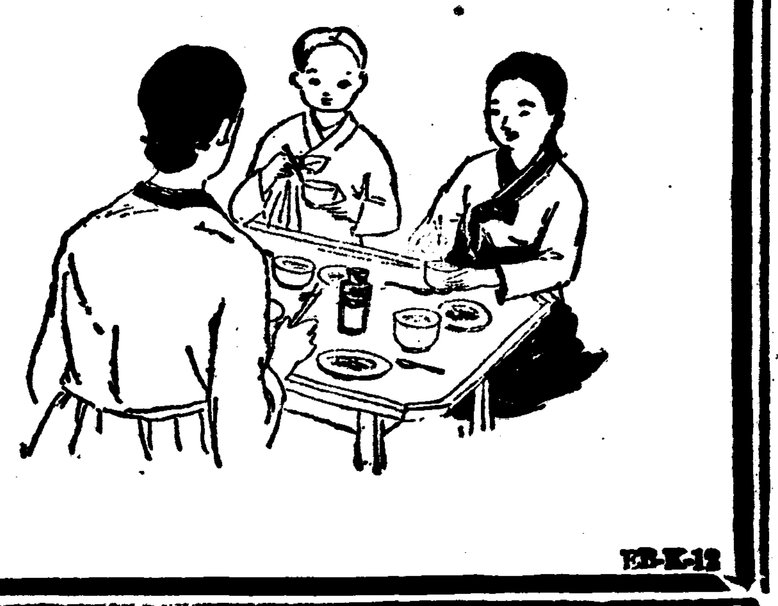


십륙세의 신국왕파-루크뎨하를마지한 애급이란나라는 영국의중압을 버서나라고 국민운동이불길처럼 이러나 내외정국이 다사다단하지만 시골농부들의생활은 단순해서 지금도 그들의당나귀경주를할수잇습니다 나귀를탄기수는 손한천의운동엿자처럼 나귀를 거꾸로타고 젓국질을하니 가관입니다

입맛을돋아주고 위를튼튼히하는

여름을타고 발육이조치못한때

귀여운보배—아드님 따님의발육(發育)이 조치못하고 아모리조흔음식물을먹여도 잘살노안가는때는 그부모의걱정은 무엇보다도 큰근심일것입니다。「밥투정」「반찬투정」을하면서도 잘먹지안는어린애들은 반듯이 밥맛을업게하는원인이잇서서 그런것이니 이런때에는 일반영양학게서나 전문의사게에서 추천하는「비다민비」의진군인「에비오스錠」을먹이시면 밥도잘먹고 먹은것이모다살노가며 병에대한저항력이강하야저서 몸도튼튼해집니다 그것은「에비오스」의주요성분인「비다민 에이、비、씨、디、이」와「갈쉬움」「크리코겐」이외 이십여종의귀중한활성효소(活性酵素)가 편리으로 편신에흡수되는까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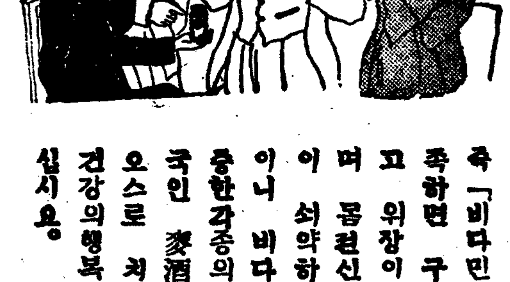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各種粉末이잇습
全道藥房에서 販賣함

만성위장병에는 반드시 원인료법으로곳치자

머리가늘무겁고 변통이조치못하며 배속이거북한분은 흔히일시적듯는다고 위산 소화제 변비약등을사용하시나 이것은 인이백이거나 며욱병을심하게하는수가만흐니 반듯이 근본적으로 위장을튼튼히하야주며 위장의활동을 민활케하야 자연적으로 변통을좃케하고 몸편신의쇠약을 속히 회복식혀주는「비다민비」의진군인「에비오스」로 원인료법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즉「비다민비」가부족하면 구미가안돗고 위장이약하야지며 몸편신의활동력이 쇠약하게되는것이니 비다민비와귀중한각종의酵素의진국인 麥酒酵母에비오스로 치료하시사 건강의행복을어더주십시요。



삿뽀로•아사히•유니온•에비스麥酒釀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에비오스錠

에 비 오 스 정

F.B-K-12

瀑布를 차저서 (其二) 俗離山中의龍湫瀑

學藝

文壇雜感 ⑥ 倦怠에지친近來評壇

朴 英 熙

그 다음으로는 作家들의 態度를 말하고 십다. 요사이 朝鮮文壇에도 歷史小說의 境地가 開拓되려는 傾向은 또한 注目되는 바이지만 이 點에 잇서서는 彼此에 適當한藝術的分別이 必要하나, 어떤때는 作家로서도 歷史小說을 野談으로 誤認하고, 그러한 筆致를 보이는 사람도 업지 아니하며, 評家로서도 歷史小說은 곳 野談으로 誤認하는듯한 때가 잇는것은 때때로 웃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歷史小說은 歷史的事實을 題材로 藝術的으로 價値를만들어낼수잇는것에 限해서 重要한作品이라고 일커를수잇슬것이다.

이러한 反面에 現代小說에잇서서는 그題材에 若干의 光彩를가지지못하야 새로운 藝術的境地가 아즉도 發見된 作家가 만히보이지 안는다. 따라서 作家가 가저야 할 信念—人生觀이나 社會觀이 確立되여 缺陷하게 보이는 사람도 잇는것은, 이것이 勿論個人的傾向이라고는 하나 요사이 朝鮮文壇에는 도한 普遍的 傾向가티도보인다.

李泰俊氏의 最近論文에서 指摘한바와 가티 作家들은 各自의 포!스를 擴해서 適確한規定이 업다. 이것의 規定이 朝鮮文壇에잇서서 急務가 아닌가 생각하는바이다. 말노는 韓國派니, 希臘派니 하나, 그 作品에서 보면 누구나 다 한가지의 하소연을 되푸리 하고잇다.

허나 이미 ○○을 하겟다고 ○○한 作家들中에는, 그作品에서 보이는바와가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自己 혼자만 ○○할수잇고, ○○는 ○○하기 어려운 作品을 내노면서 잇는것은, 조욕이 당당한 일이다. ○○라는것은 ○○가 잇스므로 생기는것이어늘, ○○한 自己○○이 스지안코는 어느때나 曖昧한 作品이 産出될뿐만이아니라 文學的 創作力이 또한萎縮되여가는것이다. 答月 創作評에 ○을 바더 여러사람의作品을 읽어보고는 곳이러한 感想을 일으키엿다. 卽 各自의 處地를 明確히 하지안코는 救出할 方法이 업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어느때는 다만 죽은文字의 羅列에 不過한 作品도 잇섯다.

現今 朝鮮文學運動은 全體的으로 再出發을하지안흘수업는것인데 이에 잇서서는 作家들의 處地가 明確히 決定되고 硏究되어야 하겟다. 이것은 勿論小說뿐만이 아니고 詩壇에도 急務니 요사이 詩를좀 읽어보니, 이야말로 文字의羅列이며 技巧化만 하려는데 不過하야 아모런 感情—情緖의 充分한 調和와 그 思念이 全無한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技巧化 하려는 詩人은 意味모를 新造語의 狂亂的 形容詞와 아울러 不可思議의 迷宮에서 헤매이면서잇다.

朝鮮文學八月號에서 尹基鼎君의 新作을 보앗다. 그는 아조 오래동안 執筆하지 안햇다가 그리고 轉向後의 新作이니 만치 나는 반가히 읽엇다. 이곳에서 君의 作品을 評하려고는 아니하나 君의 態度—그明確한態度는 ○○家的良心에 깨끗함을 나는 즐거하는바이다.

그르다고 생각할때에 깨끗이 버리고, 올라고 생각하는것을 ○○하는것은 ○○家의 ○○이어, 올라고 생각하면서도 實行하지못하고 우울주울 하는것은 二重으로 損失이라고 생각한다.

朝鮮의 文學的發展은 비록 짤분時日일망정 그동안 여러가지의 過程을 지내서왓다. 한고개를 넘어올때마다 비록 ○○이 ○○에 만치는 못하엿슬지라도 넘을고개는 다넘고 구경할것도 남따려 만흠은 보앗다. 浪漫主義로 自然主義로 그리고 ○○○○○을 한 고개를 넘어, 푸로 文學의 野原을 지내서, 『이데올로기』의 險한고개를 넘어서서, 이제는 廣漠한荒原에 서잇다. 그러나 이곳에서 朝鮮文學은 自己의 完全한 省察을 시작하엿스며, 그러므로 出發할 方向을 定하는 것이다. 個別的으로 보면 새로운 境地를 開拓하려는 作家도 잇기는 하나, 이것은 小數이며 文壇的雰圍氣는 依然히 暗中摸索을 하고잇슴을 때때로 깨닷게한다.

朝鮮文學은 짜른 時日동안에 이러한 여러고개를 넘어와서, 어느 程度의 地盤이 세워저잇다. 그런데 이제 이만한 經驗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方向과 處地를 決定하기에 조욱이 便利할줄도 안다.

그것은 文學의 本道로 나가야할것이다. (꿋)

存在의辯護 ⑦

—人間과그自己限定에關하야—

金 基 錫

『生』은 분명히 한개의 現實이다. 그러나 『生』은 오직 한개의 現實은 아니다 『生』의 現實과 가튼程度로 그자신의 眞實을主張할수잇는만흔現實이 『生』의秩序를 에워싼다. 모도가 『生』을가진다고하랴. 그리고 모도가 『生』의 秩序속에 싸힌다고하랴. 그러고 『生』이 그것속에 고그것이라고 『生』속에 이는것이 업다고하랴. 그때 『生』은 엇더케하야서 자기를 『生』으로 限定할것인가. 『生』이 자기를限定하는것을 가지지못할때 『生』은 存在의世界에서 사러저 한개의 『久遠한暗黑』에도라가는것밧게 다른길이 업는것이다.

『生』을 否定하는것은 단순한 無는아니다. 『生』을 否定하는것은 역시 存在가 아니면 안될다. 『生』을 향하야 떠여드는 부단히 『生』을 살키려는 한개다른秩序의 存在가 아니면 안될다.

사람들은 흔히 죽이나를가르는것을 가르처 목숨이업는것이라고한다. 그러나 목숨이업는것은 어데까지던지 목숨이업는것이요 『죽은것』은아니다. 목숨을否定하는 한개의性格이요 그자신存在는아니다. 그러케 存在로서의 『生』을否定하는 『生』의否定』이라고부를수잇는것은 어데까지던지 存在가아니면 안된다.

時間에 잇서서주어지는 現實的인것이면서 『生』으로부터 구별되는 存在가 아니면안된다. 우리들은 그具體的인것을 죽이나름이니에서 찾기로하고 이죽이나를가르는것을모로라 『生』으로부터 구별하기위하야 그것을 『단순한存在』라고 부르려고 한다. 이 『단순한存在』는 무론 목숨을가지는것은아니다. 그러타고해서 그것은 『죽은것』도아니다. 그것은 存在의世界의 가장廣汎한領域을 차지하면서 『生』의秩序와 부단히 마조서는 어느意味의運動의 世界가 아니면안된다.

우리들은 우리들자신의 『生』의 世界에서 이 『단순한存在』의 世界를 늣기는것이 아닐가. 우리들자신의 『生』의 멋바다에서 이 『단순한存在』의世界가 울처이고 잇음을 늣기는 것이아닐가.

우리들은 『生』의秩序가 그것과마조서는 秩序를 가진다는것을말햇다. 그러고 하나가 다른하나에 향하야 부단히 며여들고 싸호다는것을 말햇다. 그러나 이마조서는 두 秩序는 그共通된 地盤이업서서는안된다. 『生』및 그것을 否定하는것이 그우에 서는共通地盤이란 무엇일가.

그것은 時間性의 世界가아니면 안된다. 運動性의世界가아니면안된다. 이時間또는運動의품안에안길때모든것은 자기를存在로부터다. 흙이나물이그자신의 『生』을가진다고보여지지는안는다. 오히려 그것은 『生』을때앗는生의環境가튼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흙이나물가튼것과 서로손을마조잡는때가업는가. 흙한덩이 물한줌기에서 存在로서의 우리들자신의 업음을發見하는때가업는가. 人間이 다른만흔存在로부터 우리들의어머니 時間의품안에안길때 거기에는 貴賤와徵賤이업는 오직久遠한情愛에얼매이는 만흔아들과딸이잇슬따름이다.

우리들은 『生』이 자기를다른것으로부터 구별한다는것을말햇다. 『生』이자기를구별하야내이는 根本徵表란 엇던것일가. 『生』은 死를가지지안허서는 안된다. 死를가지는입에잇서서 『生』은 자기를비로소 『生』으로指定한다. 『生』은死에향한다. 『生』은 死에잇서서 그자신의背景을 發見한다. 『生』은死를否定하고 死는 生을否定한다. 이 『生』과死의 相互否定에잇서서 『生』이 그자신을 한오리두오리 짜나아가는것이아닐가. 死가업다고하랴. 死가 업고 『生』만이잇다고하랴. 이때 이이상한 『生』은 『스피노자』의 이른바 重力업는 物體가튼것이 되고 마는것이다. 한개 存在가 死에게 살키면서 엇던燦然한 光을바랄때 이뻗어오르는 불꼬치 곳 『生』이아닐가. 死를 아페바라보면서 『生』은 다른秩序에서 차즐길이업는 生長 自由創造의 기운찬律動을보인다.

사람들은 까닭업시 久遠한것을 讚美한다. 그러나 斷滅업는 久遠이 어데잇는가. 진정한久遠은 斷滅을그속에품는 또는그자신斷滅속에 싸히는 久遠이아닐가. 사람들은 『生』을 死에잇서서 理解하기전에 久遠한것에대한 希求에사로잡혀 死로부터의 解脫을 憧憬한다. 이것은 『生』과 死의 相互否定을 破壞하는일이된다. 死를通한 『生』의自己限定을 解除하는일이된다. 死를벗서나는첫거름은 곳 『生』을잡어버리는첫거름이된다. 死를벗서나마치는마즈막거름은 곳 『生』을잡어버려 마치는마즈막거름이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부질업는 『소원』을 엇더케되야서 어느곳으로부터배혼것일가.

사람들은 存在란것을 김히생각하려고하지안는다. 存在의性格이라는것을 김히생각하려고하지안는다. 存在가 無와마조서면서時間속에서 久遠한 진실로 久遠한 生成을 보라. 모도가 時間속에서 부단히움지이고 부단히업매이고 나아가 부단히밧고이는 存在의根本運動. 이속에 칠씨허흐르는 依然 한개의움직이는存在인 人間으로서 이르바 死로부터의 久遠한解脫이잇슬것인가.

『生』은부단히死에향한다. 存在는부단히無에도라온다. 우리들은 여기서 오늘의流行인 不安의哲學 無의哲學을 마저드려서는안된다. 死로부터 『生』을보라. 그때 『生』은 부단히 死를속에이는 말하자면 死의것이다. 無의편에서 存在를바라보라. 그때 存在는 무단히 無를에워싸는 어느意味의 無의背景이라고 부르게된다. 우리들은 存在의 자신의 『生』을 省察하야 『生』의現實을 김히 省察해야한다. 『生』에잇서서 死를외오고 死에 잇서서 『生』을 외오면서 『生』의秩序의 나아가 存在의世界의 根本構造를 바로究明해야한다.

文學館과 文學賞制定論

—雜誌「批判」에對한나의抗辯— (上)

成 大 勳

지난 五月七日부터 三日間의 ○○○○를 ○○하야, 나는 내가생각하는바 文學者의 生活問題에對하야 論하면서 「文學館의 創設」을 圖하야 「文人으로 하여금 그會館을 中心으로 한개의 集團的 文學運動이 이러나게할것을」 主張하고 아울러 文學館을세움으로서 分散的인 그리고 너무도 無秩序한 朝鮮文壇의 實的向上과 質實하고 集團的인 한개의 文學的團結을 圖할수도 잇슬것을 斷言하야 「有志」의 ○○○○를 ○○하엿다.

그리고 또 論을 展開하야 이 文學館과 아울러 文學賞制度를 創定하야 「文壇的인 水準」을 노피고 또한 作家의 力量을 社會的으로 認識시키는同時 그作家의 生活上保障을 어느程度까지 할수잇게할것을 力說한바잇섯다.

이論은 事實에 잇서서 朝鮮의 精神文化發展을 爲해 論한 나의 文學者로서의 熱意잇는 告白이엿다.

그러나 이論에對한 抗辯이 ○○○라는匿名으로 月刊誌 「批判」 七月號 巡評欄에서 反駁되여 한篇으로 남고잇다.

그러나 나는 그글을 읽고 그들의 無智와 그들의 卑怯한 態度에 可笑를 不禁하엿다. 그래서 이글을 草하기를 주저까지 하다가 一言의 辯明을 사는것이다.

曰 「最近一部의 文學人으로서 文學館創設, 文學賞制定의 必要가 〃決定的이 아니라〃는 條件付로서 提唱되엿다. 그것이 妥當이 아니엿스면야 저들을 爲하야 그얼마나 기쁜 事業이랴만은 한개의 中等學校의 學校를 經營할수 잇는 有産者가잇다면(?)하는 疑問을 解決하엿스니, 이疑問은 確實히 具體性과 相去 (距겻지—筆者)되기를 五十步百步……」

하는문들은 匿名이지 未知이나 첫재로 이論文을 똑똑히 읽엇는지 그것이 疑問이다.

그러고 둘재로 筆者는 「最近一部에서 떠드는 中等學校創設計劃이 ○○에서 일어나게되어」 그것이 ○○이다.

나는 나의 論文—五月八日附 朝鮮日報—에서 이러케 말햇다.

「……文學館의 建設은 勿論容易한일이아니나……이것은 決코 不可能한일이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개의中等學校를經營할수잇는 有産者가잇다면 이는可能한일이기때문이다……」

나는 以上에서 疑問(辭)를 쓰지 안엇다. 假定은 햇슬지언정 疑問(辭)는 쓰지도안햇다. 첫재君은 疑問(辭)와假定을 區別못하는아이 ○○○○의人이니 理論을 ○○하기에 ○○○○○○하다.

그러나 나는 지금에 잇서서 中等學校의 ○○에 對하야 ○○하야 ○○을 ○○하는者는 아니다. 그러기때문에 ○○은 ○○○○○하는 ○○○○은 참으로 ○○大한 ○○를 가진것이라고 말하고 ○○하야 「그러타고 高等敎育을 밧고 한社會 한民族의 精神文化를 指導批評하는 文學者들이 가려 ○○에 彷徨케한다는것은 이도대한 ○○이 아닌가」 ○○은 ○○에 ○○○○이 ○○하야 ……

異國情趣 (四)

於哈爾濱 宋政勳

松花江邊

젊은 그네들이 즐거우리 만큼 든놀은 肢體와 몸지마람으로 靑春을 讚美할 機會가젓고 북—하고 어듸 하게 보내는것이 北滿의 젊은이들이다.

조이는 여름날 鍛鍊附近에는江물우에 뵈—트를 띄우는 바다가 머—니사람들에게는 물도업는 享樂이다. 江邊에水浴場에 粉紅빗을싯은女人의에로가暴露되고 「오」든俱樂部도열니여 江물은 뵈—트로덥히어잇다. 食口總出의團欒에 或은 戀人의손을맛잡고 며—튼는게 벋게江面을 지치는것이다. 여름의松花江邊은 歡樂의人海.

讀者社交

▲成俊德氏 第三次의 하이킹·코—쓰를 江華傳燈寺로 決定하셧다하오니 參加規定을 速히 本紙上으로 發表하야주섯스면 조켓슴니다 京西 金淸吾

▲小生은 今年卄七歲의男兒이오나 現在失業의苦痛을맛보면서 都會의一隅에서 數人을찻고잇사오니 商店會社의書記或外交員으로採用하실분이게시오면 本社交室에 貴意를알려주시면 住所와經歷을詳細通知하겟나이다 特히 印刷、紙物、雜貨等의外交에 經驗이잇사오니 이方面에紹介하여주서도 無關하겟슴니다 採用又는 紹介人에게는 感功報答、永遠不忘也 北鮮K村 P生

▲小生의神經衰弱과 神經痛을 手術하여주시든지 그러치안흐면 朝鮮內에서 前兩者治療에最適한 溫泉二個所를 알려주옵소서 恩德은 結草報恩하겟삽나이다 慶北 一讀者

▲나의親友의 李喜益君의 住所를 알고자하오니 或右君의關係를 잘아시는분이 잇스면 左記處所에 通知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咸興府萬歲町八六番地 朴正淳

▲讀者諸賢中 左記書籍을 要求하는人士가게시면 相當價格으로讓渡하겟슴니다 希望하시는分은 本欄을通하야 通知하시면住所를記送하겟슴니다
一、親田晋著 臨床藥理學 全
一、大澤岳太郎著 新撰解剖學 第一、第三卷 一、今裕著 近世病理解剖學 全 一、山田薰著 生理學 全 一、有賀孝治著 無機化學 全 (慈惠生)

▲讀者여러분께 問합니다 李貞愛(朝鮮의누나)飛行士는現在所는東京어데지아시는분은紙上으로 알려주서요 (飛行志願生)

▲本紙第五千三百六十八號社交室통하야 問하신明治四十四年 陰五月二十三日은 陽曆으로同年 六月十九日乙丑日입니다 그리고 要求生의 問하신大正四年正月十七日은 陽曆으로同年三月二日에 該當하고太歲는 乙卯、月建은戊寅、日辰은壬辰、支時는辛亥이가 합니다

▲京城府內에 保姆會라는 團體가 有하야 生徒를募集한다는데 그會의 住所를 알게하여주시오、本人은 生後를 給作하지 關되는데 여기에對한 書籍과 朝鮮及世界의 生後統計를 알고저 합니다 (咸南 一生後者)

▲社交室을通하여 讀者여러분께 付託합니다 年의友人中에大學卒業하고 某會社에 勤務하는今年三十一歲된獨身靑年이 有하온대 著來以上年齡二十歲以上으로卒業한 女性을求하오니 適當한분이계시거든左記로紹介하여주시요 東京市小石川區西原町二의三〇 緖三永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九月二十日 至三十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畫科(四君子畫包含함) 西洋畫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畫科 手工科

褒賞
入選作中에서 左記一般의入賞作을選拔하야 各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品을贈呈함)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으로부터 特選賞에兼하야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十二日 一、搬入期日 自九月十三日至九月十五日(各地方支局에는九月十四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야 本社 又는 各地方支局으로 請求하고 作品裏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學校名、學年及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各地方支局에送入하시오 (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皮膚病에 꼭발너야할 데—무水

皮膚病疾患者—우—水가 皮膚病의 治療에 가장 適當한것은 皮膚의 ○○○○○이 ○○○○이다 皮膚病이 ○○○○○ 皮膚病疾患者—우—水一瓶을 ○○하시라.

●殺菌作用
皮膚病으로 ○○○○ 어느것이나 ○○○○○○○○ 그는 細菌의 ○○○○○○○ 가뭇한데에 ○○○○ 데—무水는 人體皮膚에는조금도 刺戟업고 安全無害하면서도 適當한 殺菌作用을 가지고、病原細菌도 ○○○○○ ○○○○○○○ 皮膚病을 ○○○○○.

●消毒作用
病菌이 ○○○○ 毒素를 ○○하야、고름이 나오고、皮膚가 ○○○○ 中에들어가서 全身의 ○○○○○○ ○○ 데—무水의 消毒作用은 毒素를 分解消滅식히며 皮膚面에 ○○○○ ○○○○○ 다.

●收歛作用
데—무水는 그特性인 收歛作用으로 殺菌、消毒의 各作用과 相俟하야 特히 人體皮膚에 ○○○○○○ 目的을 ○○○○○○.

特長
쓰리지안코、압흐지안코、보이지안코、냄새안나고、더럽지안흔外에 毒、痛痒을除去하야 빨이낫게한다.

主治効能
●습진 ●버짐 ●피부염 ●가려움증 ●두드러기 ●땀띠 ●무좀 ●기타 ○○○○ ○○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發賣元 東京藥院本店 東京市芝區田村町二丁目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東京藥院支店 大阪市

털나는후미나인

田中醫學博士新製藥으로 毛根部에殺菌、榮養、發毛○○의 作用을 ○○하야 ○○○○나게하고、○○○○、若年禿、薄毛、○○○○ 不○○○○ ○○○○ 하시라.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
前記東京藥院에 申込하시오

中央館 永樂町
七月廿一日부터三日間大公開
流線型超特急 チャールズスタレッド主演 ドーマスアトキンス監督
今週特別名畫提供週間
每日晝夜二回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 晝間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世界名畫 싸홈하는巨象 리차드·보레스키 氏監督

第一劇場
右은天國
勤王飛脚

優美館 黃金町 電話光三九五
お七鹿子染 新興キネマ京都撮影所超特作
椿は紅い 新興キネマ大泉撮影所特作
蒼花紅蓮傳
西部の旋風
素顔はなぜ紅い

若草映劇場
ロッパ 若 タ ジ ロ▲
榎本健一主演 エノケンの千萬長者 P·C·L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連載野談

布衾記 (七一)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복을짓는그갈 (十五)

호동왕자와 공주와의 가례는 굉장하게도 거행되엿다. 그장한 긔구는 일즉 보지못한 긔구이엿다.

『어쩌면 그러케도 전생배필일가.』

하며 여러조신들은 호동왕자를 내복을 식히면 공주。공주를 내복을 식히면 호동왕자。그와가티 서로 틀림이업다고 그잘난것을 탄복하얏다

락랑왕도 딸공주를 보나 사위 호동왕자를 보나 서로부족한데가 업는것을 퍽이나 기뻐하섯다.

그래서 사위 호동왕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할사록 딸공주도 더욱 귀여운 생각이 나섯고 딸공주를 귀여웁게 볼사록 사위 호동왕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간절하섯다。

호동왕자와 공주사이의 금실은 참으로 끗업는 사랑의금슬이엇다。

밤이나 나지나 서로 떠러지기를 슬혀하는것은 그만두고밤에도 속살속살。나제도 속살속살。무엇을 그리 속살거리며그 속살거리는것은 어이 그대지끗업시 질고도 길며 만코도 만튼고。그중에도 공주는 그화용월태가 분명 옥계(玉界)선녀이엇만은 그래도 호동왕자와 가리잘난 남편의 배필되기가 오히려 부족한데가잇는가를 열려하야 몸가지는데와 단장하는데 지극히조심하얏다。

그뿐아니라 공주는 그 어진마음과 밝은 덕성이 분명 요조숙녀이것만은 그래도 호동왕자와가티 범절이 장한남편을섬기는 도리에 부족한것이잇슬가조심하야 때때로 내측편(內則篇)과 렬녀전(烈女傳)을 끄내어 녀자의 어진부녀자의 말슴과 행금을 본드기에 힘썻다。

이에 호동왕자는 공주가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범절이 갸륵할사록 공주를 사랑함이더욱 극진한것보담 위아치는 마음이 더욱 만하얏다。

그래서 공주를 대할때는 어여뿐 꽃을 보는듯、사랑스러운 마음보다 귀한 보물을 대한듯 소중한 눈길이 떠것다。

그런데 어느날밤에 호동왕자는 공주가 곤한 잠속에 잠긴 때를 타서 몰래 일어나 공주의 잠자는 태도는 어떠한가를 보앗다。

공주는 아무것도 모른다는듯 아무 걱정도 업다는듯。오직 평과 복되것뿐이라는듯。그잘난 태도는 마치 물에 잠겨 섯는 붕어의 태도가스고 회ㅅ대에 올라 조는 비듥이 모양도 가렷다。

첫재 곱게 내쉬고 드려쉬는 가벼운 그숨소리가 한끗 순하고도 보드럽게도 들리려니와。물찬제비와가티 날신한 몸매드리。그중에도 쥐면 한줌에 들듯한 가는허리。바아지를 잣으로 엎허노흔듯한 본질본질하고도 둥근잔허리께의 고로낭 빼비꼿가리 맥근히 내려온 두다리。외씨가티 쏙빠진 발。백련화꼿입닙을 업허노코 보는듯한 그히고도 충통한 손。무엇이라형용할수업는 그귀,눈,코,입의 모습。다 각각 떠여노코 보면 그대로 각각 어엽부고 한데로 아노코 보면 또한 그대로 어여뻣다。

그런데 원래 공주는 비록 자리에 누웟지라도 그몸매미세를 조심하거늘 어찌다 자리옷허리가 잠간 흘러내린것으로 말미아마 허리통이 반넘어 들어낫는바 은주박이 딸린듯한 그것가엿 딸을 약간 붉힌 뒷으로 거도령이 미로로 내비치는 것은 그 펑장 그것이 모두 한폭 어울리어 괴이한그림폭을 펴노흔듯 하얏다。

호동왕자는 공주의 누어자는 그래도를 뚜러지게 이리、저리 석밤구어 드려다 보는중 특히 그 히고도 탐스러운 젓통이。그젓통이 중에도 정통은 비즈로변한 정욕지를 떼 유심히바라 보다가

「공 저 정욕지 비ㅊ 화심히 처녀의 정욕지 벼지 아니라는 빗갈」

하면서 호동왕자는 그 자는 래도까지 어여뿐 공주를 자는 그대로 맛처 조홀 구실을 동을、동을 물리듯이 이리 저리 한끗 굴리고 심기도하고 오래오래。똑 안어 보고도 싶헛다。

대저 호동왕자는 가례를 거행한뒤로부터 공주의 지극한 사랑을받기도하고 지극한 사랑을 주기도하얏다。

그러는중 그 마음에 노리고 노리든 그불과 락랑에 대한생각의 그림자는 차차 희미해지며자칫하면 아주 살어지고 말게도엿다。

그런데 호동왕자는 한끗 싸랑스러운 마음으로 공주의 자는 래도를 취한듯이 홀린보다가 별안간 두주먹으로 가슴을 번갈러가면서 첫다。

娛樂

토-키-의根本問題

—몬타쥬에對한論攷—

⑥ 林蔚川

(아버지목소래만나다)

—오날은 정말너를 꿀방에다가 가둬둘테다 (畵面)—

(거리에서 뛰고노는 아이들)

—네가 어머니돈을 훔처서活動寫眞구경을갓섯지 —(畵面—菓子봉지)

—너는 學校에서도 말을 안듯는다고 소문이 낫서 (畵面—試驗時間)

—말을 들어봐! 어른말에 順從해야지 되잔켓니 (畵面—어머니의 怒한 얼골 先生의 怒한 얼골)

이러한 아버지의 訓戒하는 말의 意味 內容과는 矛盾된 畵面(映像)을 그말(音聲)과 對立(衝擊)시키는데서 一種 嘲笑的인것을 卽 작난꾼아들이 그아버지에게 對한 嘲笑的態度를 表現하게되는것이다

토-키-의 技術的理想으로말하면 두말할것업시 音과畵(映像과音聲)의 싱크로니제이슌(synchronizition)이지만 토-키-의 藝術的創造라는 點에서보면 表現手段은 되지못한다

싸이렌트 映畵가 純粹한 視覺的手段으로써 具體的世界以外에 抽象의世界 聽覺의世界도征服하고 거기의 몬타쥬도 그런데特徵이잇섯다.

그러나 오날 音을自由로省수잇는 토-키-에서는 싸이렌트 映畵가 가젓든手法(聽覺的現象을 純視覺的手段을 表現할녀는것과 또는 抽象的觀念을 表現하는等의)은 存在價値를 認定할수는업다。

本論(一) 中間에서 紹介한 에이젠슈타인의 所謂『辨證法的몬타쥬』의必要도 업서지고말다— 우에서도 例를들긴지만 입(口)과개(犬)가 우는것을(짓는것)말한다는것은 입(口)이라는 具體的記號와 개(犬)라는 具體的記號와를 對立식히는대서 畵面的으로는 表現하지못하는 짓는다는 抽象的觀念을 맨드는일 그것은 토-키-에서는 必要를늣기지아니 하기때문이다。

또 對位法的手法이라는것은結局 音과畵面의 均衡을 保持하고 뿐만아니라 싱크로니제이슌에잇서서 音과畵面이 똑가튼意味를가지지 못하게됨으로 싱크로니제이슌을 破壞하는것으로서 音과畵面을 各個獨立된 關係에서 取扱하게된것이다 그것은이미 一九二八年發表된「發聲映畵에關한宣言」(에이젠슈타인、푸도킨、알넥산돌로푸 三人連名으로) 가운데서 指摘되야잇는바와가티

—발성의 새로운 要素로서視覺的影像에서 獨立된因子로서取扱되는音은 必然的으로 가장複雜한問題를가지고 또 그것을解決하기爲하야 하나의 新녀한 힘을가진 새로운 手段을 提供하는것이다 우리는 우에서도暗示햇거니와 音이視覺的影像에서 獨立된 因子로서 使用되는것이 토-키-의 出發點이잇고 또는 畵面에對해서는 對位法位置에잇는音의利用法이것을말엇다。다시말하면 畵面과音과를 各各獨立된因子로해서 對位的位置에서畵面(影像)만이나音만이表現할수업는것을 畵面과音의 對位的몬타쥬에依해서 表現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오날까지려시아의토-키-가걸어온길이다 亞米利加에잇서서는 씽크로니제이슌이 映畵製作의根本原理로서 取扱되온것을 注意할必要가잇다 卽 亞米利加의 映畵形成法은 씽크로뉴리的 構成이다

그러나、그것이 몬타쥬的構成과 對應的인것이 나할때、事實은 그러치안타고할수잇다 技術的몬타쥬手法으로말하면 와리시에푸가 指摘한바와가티 亞米利加에서다、亞米利加에서는 少數의例外를除外하고는 몬타쥬를 藝術效果의獨自의要素로서 評價하지아니하고 單只映畵의素材로서 從屬的인 効果만을 가진 技術的手段이라고 생각한것이다。거기서 려시아映畵理論으로된 몬타쥬와區別되는 點이잇는것이다。

×

以上 가장粗雜한考察로써 爲先結論을짓지아니하면안될것은 本論은아니다。여러가지몬타쥬理論이 우리들의 貧弱한 映畵에는 한번도用意周到한處方箋을가저보지못하얏다고 나는認定하는 섭섭한同感에代하는데서 압날 우리가 創造할토-키-의領域에서는 무엇보다도 在來의 몬타쥬理論을 攝取도한 克服하는데서부터 出發할것을 나는 强調한다。

本論冒頭에서 몬타쥬理論의結論을代하야 오날의 토-키-藝術은 이미 에이젠슈타인流派의 몬타쥬를가지고는 原理的으로부터가 들어맞지아니한다는것을말헷다。 그러나 새로운音과畵面」을 하나로서보는 토-키-・몬타쥬의理論은 아직것 보이지아니한다。단지 오날의토-키-는토-키-・몬타쥬를 切實히要求하고 그러케되는데서 비로소 發展을 期待할것으로나는밋는다。

한 피리오드前 發聲映畵에잇서서는 音響과 音樂은 鋼路네거리와가튼 雜音氾濫時代를 經驗하야다。 그런가운대서 發聲映畵가 對位法을發見한것은 우에말한바와가티 音의藝術化고 또는 토-키-에의飛躍을 約束하는프로세스로서 重要視된다。오날토-키-는 토-키-以前의 모든 發見과勞作을 繼承하고잇다。남은問題는 토-키-의 이제부터의 거름거리(發展)다。우리는여기에 參加하는 當然한名譽를拒絕하야서는아니될것이다。(끗)

名監督 에젠슈타인

▼후피—파라마운트映畵「옷피」에잇서서 리챠드·크롬웰과 로제도·하드손

뎀풀의몸갑슨 천량의몃천배

【로산젤스(羅府)發】 映畵界의「조고마女王」世界의人氣者셜리·템풀도 이제 수年으로大成에進하야 더욱演技도 精鍊되고 愛嬌도增加되야契約會社인 또후연테스、쎄쥬리、폭스、스타되오에서는다시업는財數본스타—로 아는同時 法廷으로부터 藥이가지안할까 注意하고잇는데 同社에서는 요지음 當地의保險業者와의 契約을 締結하얏다 그 保險金額은 저그마치四百萬弗이요 도귀여운 뎀풀의人形을 製造하는이데알·노벨티會社에서도 뎀풀을 爲하야 十萬弗의生命保險을契約하얏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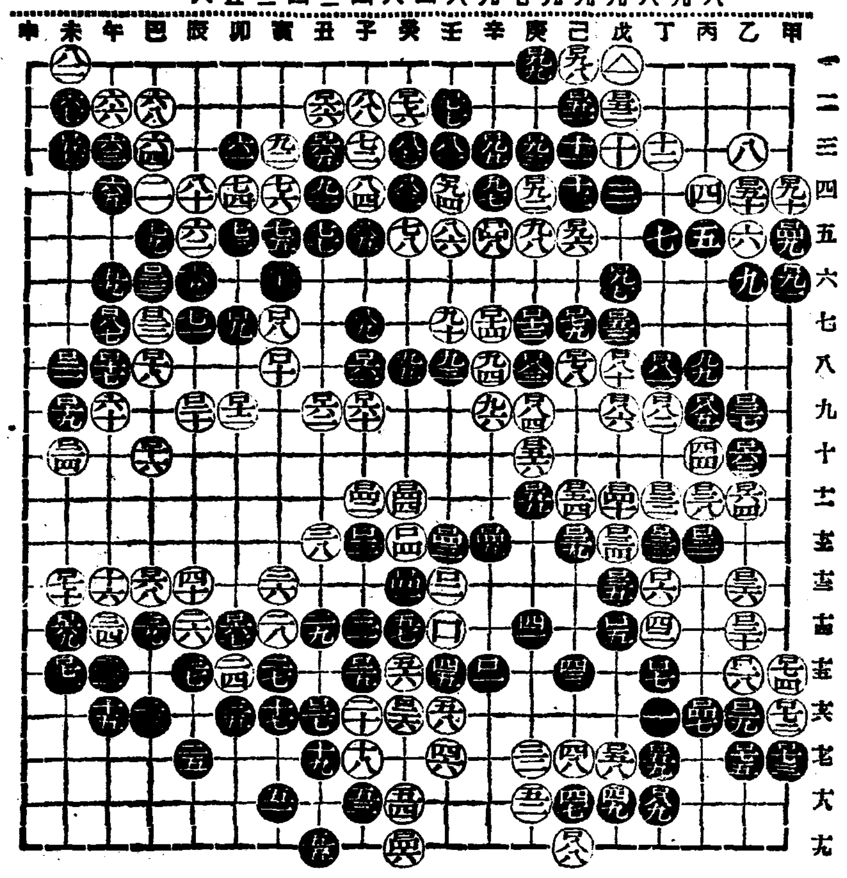
여름더위에는 시원한게 제일

여름 더위에는 서늘하게 헤수욕복을 입엇스나 무엇이 시원하여 또그러고 싶다 그는 그의 자태 얼골을 스쳐서 지나가는 가느다란 우슴의 물결 기가 무더위에 부닥기는 피로를 경쾌을 소생시키어 주는듯 여女子는 등·부론데 에로분장에도 재미마쳐지만?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12—

白 丁奎春
黑先 權秉郁

●八一 丁의八 ○八二 丁의九 ●八三 庚의八 ○八四 庚의九 ●八五 丙의九 ○八六 戊의九 ●八七 午의七 ○八八 己의十九 ●八九 丁의十八 ○九〇 甲의四 ●九一 甲의六 ○九二 庚의四 ●九三 庚의三 ○九四 壬의四 ●九五 辛의三 ○九六 己의五 ●九七 戊의六 ○九八 己의一 ●九九 庚의一 ○一〇〇 戊의一



梁極文氏評日

此回는 黑白雙方에 二二四分攻으로 手先己耳라 別無着着點하야 省略하노라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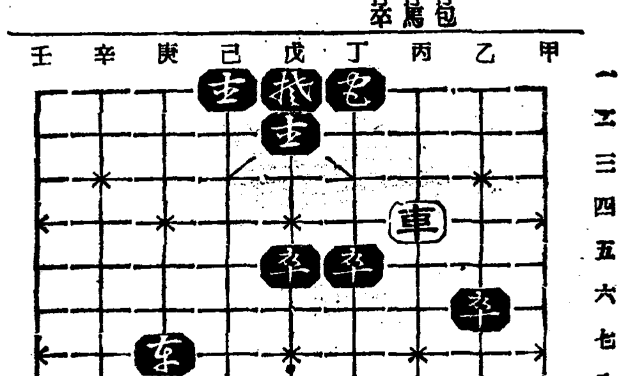
七月廿四日(金)
丁未·水九·諸
陰乙未六月小(初六日)
●祭祀에 吉
●大暑二十三日(陰初五日)
●立秋八日(陰廿一日)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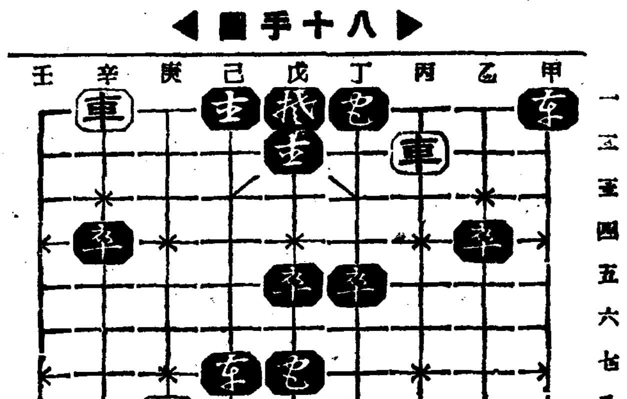
漢 手先 李在鳳
楚 李英鎬

◀九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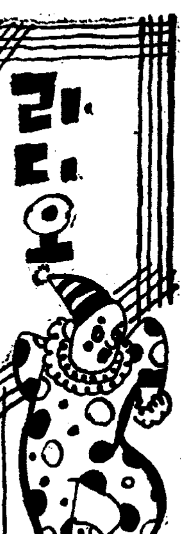
庚八馬—戊七打包
己七包—戊七打馬
辛一車—辛四打卒
戊七—庚七
己十包—丁十
甲一—甲十
辛四車—辛十
乙四—乙五
丙二車—丙四
乙五—乙六



◀八十手圖▶



라듸오



二十三日(木曜)

◇午後六時三〇分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스웨덴·노르웨이」(一) 徽文高普 金道泰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二) 〃星辰이야기〃 館炳俊
◇同八時 趣味講演 〃齒牙와犯罪〃 鄭保羅
◇同八時三〇分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寧邊歌 三、山念佛 四、기-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總謠난봉가 金順紅 金蘭香
◇同九時 古談 〃宿命〃 金讚鎬
◇同九時三〇分 歌曲 一、界面 二、數大葉 三、界面調 四、界樂 五、編 唱 金相準 洋琴 金桂禎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六時 이야기 駒澤大學兒童班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阿知和安彦
◇同七時三〇分 講演 大羽 高野旭方
◇同八時(東) 獨唱
◇同八時三〇分(德)復送
◇同八時五〇分(大) 映畵劇

二十四日(金曜)

◇午後零時五分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船遊歌 三、平調 四、달거리 尹一枝 朴玉蘭
◇同一時 野球試合實況 京城그라운드에서—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中部豫選準決勝
◇同六時三〇分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 스웨덴·노르웨이(二) 徽文高普 金道泰
◇同七時 課外講座(三)『動物의壽命』 李德象
◇同八時 講演 〃原始人의生活〃 培材高普 金汝植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설음의벌판 二、쌍상화 三、放浪者의노래 四、平壤打令 五、청사초롱 六、故鄕의하눌 七、新慶天歌 金彰培 申蘭秀 文一華
◇同九時二〇分 라듸오드라마 팔지(腕環)一景 —配役— 알무렐스트로작 金鄕 三譯 스미스(下女)……金仁順 윌리암(下僕)……朴貞植 마린(執事)……金桂永 웨스탄(實業家)……楊薰 애리스(그의妻)……白雲 토마스(判事)……林流影 토마스夫人……趙曉雲 따렌(家庭敎師)……田曉星 演出 靑蝠會 効果 李昌林 金英輔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花革四旦里外 一、花革四旦里 二、報念 三、六字백이 四、興打令 五、개고리打令 高桂仙 高飛燕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速成獨語講座 張信一郎
◇午後〇時五分(東) 輕音樂
◇同二時 趣味講話
◇同六時(東) 노래공부 守道子
◇同六時二五分(東) 趣味講話 中村古峽
◇同七時三〇分(東) 童謠 獨唱 松本俊子 伴奏 알메리아管絃樂團
◇同七時四五分(東) 라듸오드라마 —作並演出 小崎政房 出演 松竹大船一行
◇同八時一〇分(東) 端唄 杉井幸一
◇同八時二〇分(東) 이야기와 詩吟 —야기 奈良島知堂 詩吟 佐佐木孝吉
◇同八時四〇分(東) 今日의歌謠 —秋山右樂 秋山左樂

◇同八時 歌謠「旅行의興味」 李東成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沈淸歌 竹林七賢
◇同八時五五分 雜歌 〃釜山會〃
◇同九時二〇分 名曲鑑賞(레코-드演奏) 解說 絃樂四重奏曲 D長調(K五七五番)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안단테 第三樂章 메누엣 第四樂章 알레그로 朝鮮音樂家協會 李鍾泰 프리스카絃樂四重奏團

第一放送

◇速成獨語講座(東) 張信一郞
◇午後零時五分(東) 主題歌
◇同六時(大) 童話劇 BK코도모써클
◇同六時二五分(東) 生活改善講座 下村宏
◇同六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朗讀 高橋 德川夢聲 小森七郎
◇同八時三〇分(大) 義太夫 竹本叶太夫
◇同九時一〇分(東) 漫談 秋山右樂 秋山左樂

二十五日(土曜)

◇午後零時五分(東) 輕音樂
◇同二時 野球試合實況
◇同六時三〇分 童謠 旺新學院兒童
◇同七時 時事解說 申基碩 伴奏 金泰哲

クラブ齒磨

구라부

大懸賞御優待

愛用者百五十万人樣
賞品總額十万円

締切切迫 七月末日까지

大賞の品

구라부齒磨의 空函에다누구든지 應募할수잇는大懸賞! 자선販賣店에서 전업서優待景品을드립니다 다시左記大賞品은抽籤으로當選됩니다

懸賞課題

❶ 니를희고、虫齒를늘저안케하는クラ○齒磨!
❷ クラブ齒磨의마크는 食感 臣、大○券!

右의○에適當한字를記入하시압

解答쓰는法

締切……昭和十一年七月末日
發表……昭和十一年八月中旬
クラブ齒磨大懸賞係

굉장한이大賞品!

天賞(何れかお好みの一品選擇) 六百名
紳士用 紹羽織地 壹反宛 カットグラス煙草セット 壹組宛 旅行用手提鞄 壹個宛 マンドリン 壹個宛
淑女用 流行柄晴雨兼用洋傘 壹本宛 クラブ化粧品詰合函 壹個宛 新柄銘仙 壹反宛 本麻蚊帳 壹枚宛
子供用 ベビー服セット 壹組宛 舞踊人形 壹個宛 實驗用顯微鏡 壹台宛 中學用野球具 壹揃宛
地賞 坂東好太郎好み 飯塚敏子好み 高杉早苗好み 流行柄浴衣 壹反宛 二千名
人賞 綜合ホルモン含有 若返り化粧水クラブ乳液 壹瓶宛 六千名
御優待景品 クラブ美身クリーム(普及瓶) クラブ美の素(小形) クラブ乳液(普及瓶) 何れか壹個宛 全部

「두레」노름하다말성
兩部落民들이亂鬪
雙方에는重輕傷者까지多數
畢竟맛告訴로對時

【扶安】 작년에 극창한계를한 부안지방농민들은 금번의좋나운번사에흥이낫슴인지 곳곳에서두레놀음을하게되여 농촌의유일한 대중적인 오락인 농악소리가 들니게 되드니 부안군백산면 죽림리 (扶安郡白山面竹林里) 부락민과 린접지인 부안군부령면 내요리 (扶安郡扶寧面內蓼里) 부락민은 공교히 지난십팔일에 량부락에서두레놀음하게되여 전기죽림리에서 량부락편 농악군이마주치게되앗는데 농악(農樂)행군의례에 말성이되야그로인하야 량부락민 이백여명이 어울려 일대란투를하게 되여서 다하다 황편에 다수의중경상자를내이고 겨우해여지게되엿다는데 그후양부락에서는 서로중경상자의 진단을내여 고소다툼을하고 며욱히번데의 소위량반상놈이란 감정에서 며욱이화하야 금후그귀결이 어찌나될는지 주목거리라한다

산회사당국을 걸어 고소를제출코저 준비중이라는데 그장래는 주목중이라고한다

利原에도大旱魃
移秧畓全部枯死
田穀에도影響多大

【利原】 함남리원군도 한재가혹심하야 농수부족으로 이앙못한 정수답이 만타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이미이앙하여노흔 신답천수답 원수말단답(新畓天水畓末端)등 삼백여정보는비오기만고대하엿스나 결국비가오지아니하야 이앙한것이 고사(枯死)하며 전곡(田穀)에도 넘우한재가 태심할뿐아니라 지난이십일아츰에 봉상풍(逢霜風)이불고 태양이 의밀에도 역시폭사하는데 팡총은 사정업시볼어 대두와 조、수수기타 각종전작물에 큰영향이 밋는다는데 금번피사도 흉작을미면이라 일반농가에서 우려중이라고한다

把撥郵便所에
電話架設促進

【把撥】 함남 풍산군 파발(豊山郡把撥)은 함남북부 풍산、삼수、갑산(豊山、三水、甲山)삼군을 통하는 후치령(厚峙嶺)이북의 관문으로 해륙물산 집산지로 대정구년 개시(開市)이래 급진적 발전으로 지금은 풍산군 제이도시로 굴지하게되야 소화사년 삼월중 현재의 우편소가 설치되야 보통통신사무를 취급하야오든바 제일필요한 전화의 시설이업서서 지원주민들은 일반은 일대유감으로 수년을두고 긴급시설을 요망하야왓스나 아즉실현을 못보아 금번은 적극적활동으로 단시일내에 실현코저지난십부일 파발유지제씨는 전화가설촉진기성회를 조직하고 그금모집에 착수한바 동회의 위원과 당일기부자의 씨명은 아래와갓다고한다

委員長舘誠表 委員 井原榮一 委員加藤利一 委員吳用國 委員柳俊興 委員李炳𤣰 委員朱炳謙 委員鄭莽鶴 委員楊鶴齡 委員梁洪强 同趙炳瑞 同李鍾鶴

◇寄付者—廿五圓 全泰歡 各十圓式 趙宗熙 柳俊興 李炳謙 朱炳謙 鄭莽鶴 趙炳瑞 八圓 李根善 七圓 楊鶴齡 各五圓式 韓秉傑 李春燮 永裕號 洪祐

旱害咸南地方에
麥作조차大凶作
◇……比平年作四割以上減收
農村人心加一層悔悔

【咸興】 함남도의 한해(旱害)는 루보한바와가티 날이갈수록 더욱혹심하야 인제는 너무도심한 하날의 작란에 농촌에서는 허무맹랑한 각종미신과 류언비어가 떠돌아 자못 소연한 상태에잇다 이십이일 아침에 이르러서는 아연(俄然)흑운이 옹켜모여 금시 비올듯한 적극을 뵈엿스며 또면방울의 비방울까지 떠러젓스나 또어찌된 영문인지 오후에는 또다시말속하게개여서햇벼치 쨍쨍내려쪼인다

농작물의 피해는 날이갈수록 더욱 심하야 이미이앙(移秧)하엿든논(畓)도 근오천여정보나후갈(涸渴)되야 전멸에빠저버렷다하며 정평(定平)영흥(永興)지방에서는 양수기(揚水機)로서 매마른논에 물을대이고잇스나 이것으로는 아무효과를 보지못할것이라고한다 각종작물이 가물로 말느고잇는이때 맥작(麥作)은 요즈음수확기에 이르고잇는데 이역시 작동의흉한피가물로 인하야 평년작보다 사할이상이나 감소되엿다

즉금번의총수확고는이십삼만석으로서 평작으로서의예상고 사십만석에비하면 십칠만여석이나격감되엿다 작년중의 흉작으로작년가을부터 고아의 쓰라림에서 헤매고잇든 세농민들이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고잇든 이맥작(麥作)조차이가뭄에흉을이루워서 다시금 몸서리치는 실망에빠젓스며 그들의 느진가을까지의식량이 다시금 우려된다

上流의龍斷으로
廿餘町步灌漑不能
關係地主當局에陳情

【新興】 함남신흥군원평면와우동(新興郡元平面瓦牛洞) 보(洑)는 거금백여년전에 동면차하리(車下里)를 중심으로 우돈칠십여명을 개간하야 동서에수축한보로서 동면천불산강(千佛山江)을 중심에서가로막아 사용하여오든바 삼사년전에 조선질소비료회사(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가전기천불산강 상류에서 금힘을 시작함과동시에 그강물을 전부발전장(發電場)에 사용하게된 이후로 천불산강은 그 팡매(鑛害)으로 인하야 관개용으로 쓰지못하게되엿다 그로인하야 해마다 와우동 보관계농민과 금팡사이에 충돌이 심하하여오든터인데 해마다 금년은 한발까지심하야 도저히 수리를 타처에서 어들수업스므로 와우동보의 소속지주 확실여명은팡산경영자에게 원조한 항의를한결과 모내기에 팡산회사는선팡장을 딕새동안과 최근에 또 이틀동안만 휴업하야 그물을논에 넷케하엿스나 단지 칠일간의수량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야 최근에는 수전재해병중 이십여정보는 논바닥이 귀렬되지경으로 관계지주들은 수차 당국에 항의하엿스나 하등의대책이 업슴으로 지주들은 신흥군수(新興郡守)와 경찰서장에게진정서를 제출하엿스며 목하 망

金組員의負債
一人當百餘圓

【慶山】 경북경산군자인금융조합(慶北慶山郡慈仁金融組合)은 현재조합원 일천구백팔십이명으로 조합원의 일만구천팔백여 이십원자어음이 십사만팔천 사백사십이원 예금저금이 십삼만삼천원이라는바 소화칠년도 총대부액은 이십사만육천팔백칠원이라고한다 이를총조합원에 할당한다면 매일명구채무액이 일백이십사원이라한다

龍淵湖水를圍繞
內外畓側물싸홈
警察의制止로鎭壓

【長淵】 황해도 장연군룡정면룡정벌(長淵郡龍井面龍井平野)는황해도내에 굴지하는 평야옥답으로 일홈이 놉다 장연의명승이 되는 룡연호수(龍淵湖水)가 제아모리 심한가물에도 능히 그린근평야의 넓은 옥답을 그물로서 충분히 관개를 할수잇서 매변가티 풍년을보게한터이라는데 금번도에는 미증유의 한발로 말미암아 자연저수지 룡연호의 물은 그대로 붕긋고 잇스나 원체 평야의 논은 폭염의 태양의 발사로 수분을 메일가티 더욱더욱 요구하게 되으로 결국물싸홈이 이러나게되여 내답측(內畓側)과 외답측(外畓側)이 대립되여 지난 이십일에는 큰싸홈을 일으키고야 말엇다한다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듯건대 내답측은 룡정면내각지주들의 옥답이오 외답측은 제녕최서호(崔瑞浩)씨의 농장이라는바 종래로 내답측에서는 새벽부터 오후세시경까지 룡연호 물을 대여왓고 그후 시간부터는 외답측에서 물을 대여왓섯는데 지금에 가물을 당하여 내답측에서는 물을 더요구하게되으로 소화사변도에 내답측에 외답측의 소송판결에준하야 십륙시간식을 물을 대이기로 내답측지주와 소작인들이 지난십구일에 룡연리 심재택(沈在澤)씨의집에모혀 만장일치로 가결을지엇섯다는데 그이튿날 외답측에서 여전히 오후세시까지 [illegible] 말하고 제지한즉 외답측에서는 그터치 안타고 종전대로 하는것이 소화사변도의 판결이라고 대립 되여 따리며 물을먹이며 일대 란리가 낫섯다한다 그리하여 소관룡연주재소에서는 부장이하 소원이 총출동하여겨우진압식히엿는바 양방측에서는 대표각삼인식을 선발하여 송화해주지방법원 지청에가서 판결결문등본을 하여오기로 경찰에서 알선하여 지난이십일에 내답측대표김용하(金龍河)외이인 외답측대표 최현근(崔賢根)외이인이 등본하려가기로 되엿섯다는바 아프로 더욱 분쟁은 계속되지나안흘가 일반은 극히 우려중이며 외답측에서는 그와가티십륙시간과 팔시간으로 결정이되면 외답측농장은 큰탈이라하여 지주측과 소작인들은전전긍긍하는중이라 한다

清津地方에酷暑
九十五度

【清津】 청진지방은 금번드러 초복이지나도록 더운줄을 모르고지내든바 지난이십일에는아츰부터더울기시작하드니 정오에이르러서는더위는더욱 더심하야화씨구십오도의 작열작옥을이르럿다이것이금번드러 최고로바다로바다로하고 천마산(天馬山)아래 해수욕장에는 욕객이직로이천명에달하얏다한다

好飲者反省할일
燒酒에泥醉한兩人
沐浴하다一時俱歿

【慶北】 경주군건천면 송동리(慶州郡乾川面松洞里)에서 사는 김상덕(金相德)과 전상락(全相洛) 두명은지난이십구일오전열시반경에 전기건천리의 전에서 소주를 만히 마시고 며운집에 룡리암 어송동(魚松洞)못물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만실족되야 무참히 익사되엿다 한다

李朱白 沈庚甫 李丑守 各三圓式 … 李壽鎬 林學者 朱衛瑞 崔鳳泰

電燈料金減下

【天安】 천안(天安) 아산(牙山) 홍성(洪城) 직원(稷原)외의오개군에 전기를공급하고잇는 천안전기주식회사(天安電氣株式會社)에서는 금번에 전기료금을나리고 팔월일일부터 실시하엿다는데천안(天安) 성환(成歡) 직산(稷山) 입장(笠場) 광덕(廣德) 등지에는 전료금보다 대략일할가량이인하되는바 그료금은 다음과갓다

▲屋內燈

燭光別	新料金	舊料金
一〇燭光	、八五	、九四
一六 同	一、〇三	一、一四
二四 同	一、三〇	一、四四
三二 同	一、五二	一、六九
五〇 同	二、〇二	二、二四
一〇〇同	三、〇一	三、三四

▲屋外燈

燭光別	新料金	舊料金
一〇燭光	、七〇	、七七
一六 同	、八四	、九三
二四 同	一、〇六	一、一七
三二 同	一、二三	一、三七
五〇 同	一、六三	一、八一
一〇〇同	二、四二	二、六九

退學兒童救濟로
獎學費支出計畫
各郡에要救兒童調査通達

【咸興】 현금변경해로인하야 다수한 향학심을 억제하고 중도퇴학하는아동이 국히만타는것은 이미보도한배어니와 도학무과에서는 이대책으로 수업료가 업서서 통학을못하고잇는 아동약천여명에게 장학금(奬學金)을 지급하기로되여 목하 각군당국에 요구조아동을 조사중이다

이것은 아동장학사업규정으로부터 시행하는것으로 오는팔월중순경까지는 대개요구조아동을 결정하야 구월부터는 장학자금을 지급할터이라고한다 구조의 범위는 수업료를 면제하여줄뿐만아니라 학비의일부까지도 보조할듯하다는바 무산아동에게대하야서는 적지안흔 복음이라고 긔대가크다

昨年度小作料를
警察嚴重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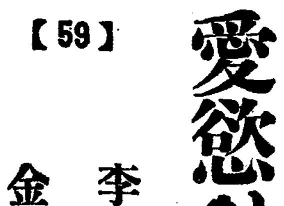
【韓山】 충남서천경찰서에서는전번 군내각주재소에명하야 동척회사의 작년도소작료 납입수량과과다를 일제히 조사하엿다는데 그조사원인은 상세히는 알수업스나 탈문한바에의하면 작년도소작료를 중수하는자들이중간에서 과중한작료를 중수한혐의인듯하다한다

長連地方旱魃深刻
代作조차立種難
모낸논판까지도말러버리여
人心은極度로不安

【長連】 장련지방에는 지난이십칠일에 약간의비가 나리고서는 이래 한달동안이나 한방울의비도나리지안헛는데 이제군면당국의 조사에의하면 미이앙답이약이할이상에 달한다하며 지금은 이앙답조차도 수원이 단절되여 말러 버릴지경으로 민심은 매우불안에싸여잇다 군면당국에서는 크게우려하야 백방으로 그대책을강구하며 일편으로는 대작물을 장려하고잇스나 한발이 이대로만계속하여가면 대작물조차 밀종할여지가업스리라고한다

新雨祭까지擧行

【長連】 장련지방에 한발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 금월이십일밤에 당지면민오백여명은 남녀로유를물론하고 각기홰ㅅ불을들고 뒷주산상봉에올라 성심으로써 기우제를 거행하엿다한다



愛慾의彼岸 【59】
李光洙 作
金康穆 畵

「그때、정원이면서 금비녀가 세개씨이나 일허진줄도 몰랐서?」

하고 부장은 은주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럿다。뒤를 이어서 사복한 사람이、

「너도 공모자 아닌가。짬아서 가티 노나먹자는 공모자 아닌가?」

하고 은주를 노렷다。

이러한 모욕적인 말에 은주는 전신의 피가 머리로 소사오르는듯하엿다。

은주가 아모 말도 업시 섯는것을 보고 형사는、

「분명 그러치? 그러치안흐면 금비녀를 세씨이나 도적을 마치고도 왜 도난계를 아니하느냐말이다」

하고 더욱 따다거렷다。

은주는 불상한 건호를 죄에 빠지게하고십지아니하엿다。그의 앎는 안해와 피ㅅ덩어리 아들을 생각하엿다。그래서 은주는、

「그런것이 아니외다。이 사람이 도적질한것도 아니오 나와 공모한건도 아니외다」

하고 입을 열엇다。

건호는 놀라는드시 은주에게로 고개를 돌려서 은주를 바라보앗다。

「그러면 이 금비녀 세개가 어찌하야 이놈의 손에 갓단말야?」

하고 형사가 호령하엿다。

「말슴하오리다」

하고 은주는、

「이 사람의 안해가 지금 병으로 왼득합니다。그리고 갓난 어린애가 젖을 못 먹어 죽으려 듭니다。그래서 안해를 입원을 식히서 수술을 밧게하여야 할텐데 돈이 업다고 나헌테 와서 걱정을 하기로 밋처 주인헌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나중 말슴을 하면 주인도 잘햇다고 할줄 밋고、그럼 어서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서 잡혀서 입원을 하도록 하라고 이 금비녀 셋을 내어주엇습니다。그런것이지 이 사람이 훔처낸것은 아닙니다。그러니까 죄가 잇스면 내게 잇슬지언정 이 사람에게 잇는것은 아닙니다」

은주의 말을 형사는 부장에게 통역하엿다。부장은 형사의 통역하는 말을 듯더니 은주를 한번 홀터보앗다。그리고

「분명 그런가」

하고 다저서 물엇다。

「분명 그럿소이다」

하고 은주는 부장을 보앗다。

「사실을 똑 바로 말해。죄지은놈을 두남을 두면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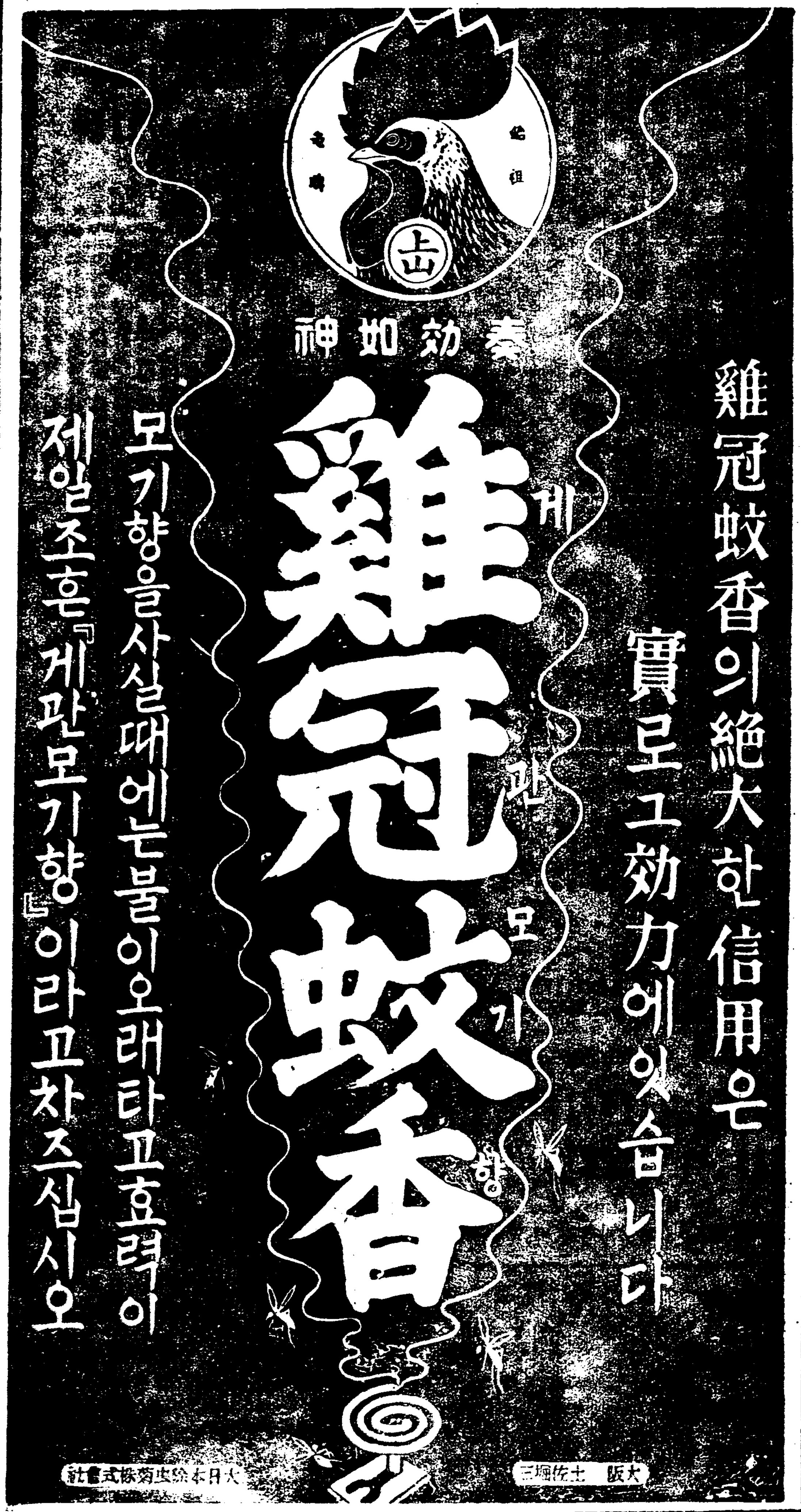
하고 부장은 한번더 다젓다。

「분명 그러하외다。주인 모르게 물건을 제 마음대로 남에게 집어준것은 죄지마는 그것은 내가 햇은 월급으로 판상할수도 잇고 또 설사 그것이 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내가 질것뿐입니다。이 사람이 어서 집에 돌아가지아니하면두 생명이 다 죽을찌 모릅니다。이 사람을 꼿노아주시면 내가 이 사람을 다리고 주인헌테 가서 다 해결을 하겟습니다。그리고 국법에 어그러진 죄가 잇거든 내가지겟습니다。사실이 원체 책임은 내게 다 잇스니까요」

하고 은주는 침착하게 조리정연하게 말하엿다。

건호를 거저내려라는 결심을 한은주든 형사의말에서 바는모욕감이나、건호가 저를조치못하게 끌어너흘듯한데 대한 불쾌감이나 다 술어지고 오직 용긔만이 나는듯하엿다。그것은자긔희생의 만족감이엇다。

은주의 진술은 경관에게 호감을 준듯하엿다。그러나 경찰에 걸린 사건이 그러케 간단히 처리될수는 업섯다。은주는 또 부르거든 들어오라는 말을 듯고 상회로 돌아와다。



經濟解說 當所株上場不許 過當投機抑壓考察 (2)

申泰翊

當所株上場禁止論의 要點은 이러하다 卽 當所株는 投機와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現行取引所法에는 取引所의 株式會社主義를 [illegible] 當所株는 [illegible] 投機를 [illegible] 그러므로 當所株의 [illegible] 當所株의 上場禁止를 [illegible]

그러타고 해서 當時의 當所株上場賣買禁止論이 實現의 可能性이 잇섯는가 하면 이것은 一種의 疑問이다 [illegible] 實現의 可能性은 매우 [illegible] 事實이엇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하면 그實現에 잇서서 여러가지의 難點이 잇섯든때문이다 卽 (가) 資本主義經濟에 잇서서 投機는 그自然發生的인것으로써 [illegible]

(나) 그禁止論대로 斷行을 [illegible] 當所株의 市場가 [illegible] 財界에 [illegible] 大新의上場賣買를 禁止케한다고 하드래도 當 株가 그뒤를 잇어여 [illegible] 不可能의 [illegible] 그러므로 [illegible] 委員會의 答申案을 決定키 [illegible]

× 그러면 [illegible] 一日에 取引所制度改革案의 成立이 [illegible] 株式市場이 一時 [illegible] 商工省의 取引所制度調査委員會에서 [illegible] 內閣調査局과 大藏省에서 取引所制度改革의 具體案을 [illegible] 다음의 取引所改革案이 되엇다는것이다 (가) 投機를 抑制하고 投機賣買 [illegible]

(나) 不良取引員의 整理, 取引員自己賣買의 禁止, 委員會 [illegible] 金의 供給을 抑制하는 [illegible] (다) 當所株의 [illegible] 그러나 이것은 全然無根하다고 [illegible] ——(終)——

朝鮮鑛業投資 十億八千萬圓

日本內地資本은朝鮮의四倍

上半期末現在

◇金鑛投資가最多

朝鮮의 鑛業投資는 數年以來 가장 顯著한바 今年上半期末現在로 總督府鑛山課에서 調査한 바에 依하면 鑛山關係會社數 百三十九, 公稱資本 十億八千六百十五萬六千六百圓, 拂込 八億五千四百五十二萬七千七百圓이라는 莫大한 數字이다 이것을 日本內地, 朝鮮別로 보면

一、日本內地에 本店을 둔 會社數 七十八, 公稱資本 八億八千五百九十二萬二千二百圓 拂込 七億一千五百六十五萬八千二百圓

一、朝鮮에 本店을 둔 會社數 六十一, 公稱資本 二億二十二萬四千四百圓 拂込 一億三千九百六萬九千五百圓

으로 日本內地資本은 朝鮮內資本의 四倍以上에 達하는바 最多投資는 [illegible] 金鑛이다

一、日本內地에 本店을 둔것(金) 五十社五億四千四百萬圓, 石炭 十一社, 五千六百萬圓

一、朝鮮에 本店을둔것(金四十社) 五千七百萬圓 石炭, 十三社 一億一千七百萬圓

財界變動을 愼戒 理想案은斷行안코

取引所制度調査委員長談

調査會에서 할일은 決코 世間을 騷擾할과 如한일은 업슬것을 나는 斷言한다

【東京電話同盟】東株取引所와 同取引員組合에서는 二十一日某新聞에 突然傳한 取引所制度改革問題에 就하야 株式界의 混亂을 避하고 穩當한 改革을 講究키爲하야 協議한 結果 森理事 遠山委員長 中山前委員長 平野副委員長은 二十二日午前十一時 內閣調査局을 訪問하고 事實眞相을 물엇던바 調査局으로서는 現在取引所制度問題에 對하야서는 何等研究한것이 업다 本問題는 先年末主務省인商工省에서 取引所制度調査會를 設置하고 目下研究中에 屬한것으로 調査局으로부터 사람을 보내어 調査에 參加케하고잇서 同問題는 一切右調査會에 一任하고잇다 二十一日某新聞紙上에 揭載한 調査局의 本問題에 關한 成案이 되엇다는것은 全然無根한 事實이다 이라는 言明을 得하얏다 또 南波 片岡兩委員長은 二十二日午後三時 取引所制度調査會委員長인 結城興銀總裁를 訪問하고 同問題에 對한 調査會의 方針에 對하야 懇談하얏는데 結城總裁는 如左히 말하얏다

取引所制度調査會의 內容에 對하야 말할수업스나 이번 것만은 言明할수잇다 卽 이번 取引所制度改正의 主眼인것은 日本在來의 沿革, 歷史, 習慣을 無視하고 改正案을 만들지는 안흘것이다 調査委員中에는 學者도 잇서 取引所制度에 對하야 研究하는사람이 만흠으로 議論은 만흐나 取引所의 權益은 理論的으로 조흔것이라도 現在의 實情으로는 그것을 斷行치안흘決心이다 또 이制度改正으로 財界에 影響을 及할 과激한것은 愼戒할方針임으로 [illegible]

東京米取新格付

朝鮮米關係分內容

【東京電話商通】東京米取는 十月限以後의 新格付를 內定하고 곳 主務省에 認可를 申請한바 朝鮮米는

一、㊥、㊤는 一圓十錢格下(現行一圓二十錢)㊦一圓格下(不變)로함

二、㊤ ㊥의各銘尾를削除

三、㊥ 新設하야 一圓五十錢格下로함

四、㊥、陸羽를 一圓格下로함(現行八十錢格下)

五、㊥、福坊主를 一圓三十錢格下로함(現行一圓四十錢格下)

六、㊦를新設하야 一圓十錢格下로함

七、等級間의 格差는 四等을 基準으로 五等은 四十錢格下 三等은 二十錢格上으로함

西鮮 京濱運賃 船會社代表渡東

京、濱、西朝鮮間朝鮮米運賃의 改訂에 對하야서는 引上運賃의 實施期가 八月一日로 目睫間에 切迫하얏는데 京濱荷主의 態度가 强硬함으로 關係方面에서는 그 形勢를 憂慮하고잇는데 京、濱荷主와 折衝키로되엇던 齋藤滋聯幹事長은 渡東치안코 關係船會社六社代表가 聯幹의 承認을 得한後 二三日大阪에서 協議하야 渡東하고 折衝키로되엇다 運賃의 引上은 名古屋이 七圓引上을 承認하고잇슴으로 結局京濱도引上되는것으로 보이라한다

北鮮製油工場 淸津에再建決定

今年二月에 燒失한 三井系北鮮製油工場의 再興에對하야는 淸津이나 羅津에建設 或은 中止할가함에對하야 內部的議論가잇섯스나 淸津의舊工場基地에 工場을 建設키로 決定하고 이미 着工하엿는데 十月의 出穀期까지는 完成할豫定이라고한다

肥料低資配定 及利差를決定

肥料低資는 預金部에서 三百萬圓을 融通키로決定하고 그配定에 對하야 總督府에서 協議中이러니 東拓, 殖銀 各百萬圓 金融組合 百萬圓으로 決定하고 이償出은 東拓 殖銀利差八厘 金融利差三厘 金組償出六分三厘以內로 指定되엇다고한다

南鮮 水電買收

朝鮮電力臨時總會開催

朝鮮電力會社에서는 二十五日大阪에서 臨時總會를 열고 一、南朝鮮水力電氣會社買收의件 [illegible]

殖銀米資減少

殖銀의 三十日現在 米穀資金貸出은 다음과갓다(以下單位千圓)

▲農倉二、六三二 ▲米倉七、〇五〇 ▲正租倉庫一、三九二 ▲其他七、二八三 ▲合計一八、三五六

今年最高貸出三千二百九十八萬六 [illegible]

人絹의前途觀

[illegible] 目前에잇서서 만약 原料가 輸出되기 시작하거나 또는 日本內地의 秋冬物이 움직이면 어느程度까지 사불수도 잇슬는지 모른다

◇ 그러나 어떠한 [illegible]

重要商品界事情

綿絲는 閑散이다 왜그러냐고하면 季節的으로 보아 市勢를 움직일 [illegible] 綿布는 [illegible] 一面 統制되든 非加盟者의 [illegible] 하나 그러타고 지금에 새삼 [illegible]

經濟寸鐵

「財界에 急變을 招치안을것」이라는것은 二、二六事件 以來 새로 생긴 流行語

○ 首相、藏相、商相의 엇버무린 聲明 잇는지 結城興銀總裁까지도 取引所制度調査會委員長의 資格으로 言明

○ 財界急變을 怯내는 國民에게 不安을 주지가튼 行動은 안하는것이 조흘것이오

○ 非常時라 人心이 動搖될時局일진대 聲明만으로는 헛일

○ 取引所 가튼 神經過敏하고 財界動搖를 激甚케 하는 機關의 改革 가튼것을 처처짐 하게 두고 調査한다는것이 이 원악 잘못

○ 改革이 必要하거던 一刀兩斷 急速할것 질질끌면 이번 가튼 때마는 根絶이 無望

漢城銀行總會開催

專務에伊賀氏를選

漢城銀行에서는 廿三日 午前十時부터 同行에서 第六十二回定期總會를 열고 一、上半期決算報告와 利益金處分案(三分)의件 二、取締役一名補選, 一名改選監査役二名改選의件 等을 附議하고 그結果 場重務의 後任으로 前殖銀大邱支店長 伊賀誠一氏가 補選되고 任期滿了의 取締役張弘植 監査役徐光世 閔奎植 等諸氏는 再選重任되엇다고

米日爲替續落

【廿三日】廿二日發同盟 廿二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二十九弗三十四仙으로二仙低, 買二十九弗三十仙으로二仙低 [illegible]

株式 操合後에 低落

前場揉合

今日도 東新大新休止인바 昨日維株暴落、暴騰되엇을 이어 今前場은 風雨浪息으로 少幅揉合이고 原狀回復이엇스나 卽昨後引에 比하야 鐘新五十錢高인 三十一圓九十錢, 日産新四十錢低인 百五十八圓五十錢, 日産不變인 七十四圓九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七十四圓[illegible]

後場低落

後場은 原氣賣物로 低落이엇스니 前引에比하야 鐘新一圓五十錢低인 百五十七圓丁、日産八十錢低인 七十四圓十錢 朝新三十錢低인 三十一圓六十錢 北鑛二十四圓二十錢 [illegible]

東新氣配不變

二十一日 某新聞紙報道로 全國株式市場全休이고 東新과大新은 前日에이어今日도 立會休會인바 이번 浪說은 取引所法違反의 犯罪行爲에因한것으로서 犯人이 檢擧되기前인 昨日前場은 不安人氣로 鐘新日産等이 賣叩되고 後場前半도 暴落되어 當地市勢도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東新(廿三日)[illegible]

商況 【廿三日】

[illegible]

取引所株檢討

[illegible]

經濟界消息

○殖銀理事山口重政氏辭任說=殖銀에서는 八月의 定期株主總會에서 殖産銀行令改正에 伴하는 定款一部改正을하고 副頭取制를 設하야 初代副頭取에는 主席理事 渡邊彌幸氏를 推薦키로內定하엿는데 그後任은 現産業金融課長山口重政氏를 起用키로內定하엿다고

○煤煙防止座談會開催=京城都市計畫研究會에서는 目下 中외 機關士指導講習會에 [illegible] 辻本謙之助氏及 殿村技師의 入京을 機會로 煤煙防止座談會를 二十四日午後二時부터 開催키로 되엇다고

今日財界 (廿三日)

[illegible]

今年처음颱風 別被害는업다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堂島前場實買

[illegible]

追從買도警戒 樂觀賣도不許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積高

[illegible]

仁川引締

[illegible]

釜山閑散

[illegible]

大邱步强

[illegible]

群山硬化

[illegible]

木浦少康

[illegible]

期米 前場伸悩 買氣不續 鈍重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康益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

石金 分析 賣買 土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一〇番地 電話本局②三二一六番 振替京城一一五四番

期米 福 仁川本町 吉村榮左工門商店

朝鮮紙物都賣 北 全北企業株式會社 京城府仁寺町二五六番地 電話光化門七四五番 振替京城二二四一八〇番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話一五四番 兼委託販賣

金融 (廿二日)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綢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illegible]